

洪州文化

제 6집

洪州鄉土文化研究會

대전중구문화원 042-256-3684

홍주문화 제6집



0002638



洪州衙門 (文化財指定 番號 231號)

- 소재지: 洪城郡 洪城邑 五官里 98番地
- 構造: 木造瓦葺
- 規模: 縱 3.5m(50㎡)
橫 14.3m
- 1870(高宗 7年) 洪州牧의 官衙인 安懷堂의 外三門으로 牧使 韓應弼이 安懷堂과 같이 建立된 洪州衙門이다.
- 이 洪州衙門은 國內에 現存하고 있는 衙門中에서 가장 크고, 特異한 形態로 建立된 歷史的 價値가 있는것으로 評價받고 있다.
- 洪州衙門이란 門額을 大院君의 親筆이란 記錄이 舊郡誌에 記錄되어 있으나, 眞品은 戰亂으로 紛失되고 現存한 門額은 누구의 筆體인지 調査中에 있다.

목 차

권두언/ 문화재 보존연구는 창작이 아니다./ ... 박문신	3
옹주문화론/ 일월산의 광명(光明)문화/ ... 배동순	4
사 찰/ 용화사·산혜암·용운사/ ... 박문신	15
창주사와 도광재/ ... 주옥로	18
노은동맥/ 최영장군, 성삼문 생가마을/ ... 전옥진	22
옹주의 인쇄문화/ 역대장감박의/ ... 배동순	30
<지상으로 보는> 옹주향토박물관/ ... 편집실	35
결성동연 보수기/ 형방청과 현사/ ... 전옥진	37
결성연 영방청/ ... 황성창	42
향토사 정보/ ... 편집실	47
만 경 부/ ... 전옥진	49
중국기행 (5)/ 은하와 정원의 도시-소주와 무석/ ... 허 규	50
자료정리 ① 옹주의사총 성역사업조성기	55
② 오 서 산	56
③ 오성산의 수박구멍이 전설	57
정치인의 도덕성/ ... 정진태	59
편집후기/ ... 편집위원	61

발행일자 : 1993. 3.

발행인 : 황 규 철

발행처 : 홍 성 문 화 원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32-3613 (홍성문화원 내)

편집인 : 박문신·주옥로·허 규

인쇄 : 명 암 사/ 대표:김기중

표지제자휘호 : 정 환 섭

표 지 설 명

■ 조선8도 고금총람도(朝鮮八道 古今總覽圖)

• 제작년대: 1640년대

• 인문지도인 이 지도는 충청도 부분을 확대한 것으로 홍주에는 성삼문(成三問)과 이서(李舒)의 이름이 보이고, 서울에서 340리라고 적혀있다.

• 필사본, 지본수묵, 許英桓 소장



약 력

- 충남 서천 출생.
- 공주교대, 한남대 국어교육과 및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1977년 8월 「으름뼉꽃」, 1978년 2월 「立秋」등으로 「현대시학」추천으로 문단 데뷔
- 「홍주문학」, 「西岸詩」, 「새여울」창간 동인
- 한국아동문학회, 한국시인협회, 한국문인협회, 국제PEN클럽 회원
- 수상: 충남문학상(2회, 1982), 웅진문학상(3회, 1991)
- 시집: 「모음」(공저), 「자갈전담」, 「농업시편」, 「바람꽃」, 「아직도 머언 사람아」, 「삼십리 독길」, 「독길行」
- 현재 홍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54 신천APT 라동 203호(☎.0451 32-0642)에서 살고 있음



저 울 뫼 [衡山]

구 재 기

소나기 반짝 소리하여 지나간
 솔나무 솔바람보다 더도 푸르게
 어찌면 까마득히 부풀대로 부풀
 한밤중 어둠 속 불빛보다 더도 부시게
 갈벌에 차가이 몸매 내어 살아 왔어라
 맑은 날일수록 더욱 잘 들리는
 굴짜기에 외로 남아 흐르는 물소리
 매운 피로, 얼얼히 매운 피로
 일찌기 푸나무들 한자리 모여 살게 하고
 속내들을 헤아려 바로 살아 왔어라
 인제는 먼동이 틀 녀을 가늠해도 좋아라
 오솔오솔 등솔기에 스미는 물안개처럼
 즐거이 땅끝까지 벰지어 나아가
 난초잎 난초꽃에 이슬을 다는 데에도
 결코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울림
 의적하고 벼적함에 삼가 두려워할지니
 해와 달의 내림에도 부끄럼 없어라.

문화재 보존연구는 창작이 아니다.



박 문 신

문화재 보존연구는 창작이 아니라고 본다. 지난날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후손들에게 영구히 물려줄 수 있는 기틀교양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존하려는 사람보다 허물고 없애는 사람이 더 많아 걱정이다.

‘현대인이다’, ‘지식인이다’라고 자칭하는 외국 물 먹은 사람들중에는 지난 문화재에 대한 보존의식이 희박한 사람들이 많은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원할 수 없는 것이 문화재인데도 예사로 파괴해 버리는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구식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대처한다? 그럴수도 있다. 문화재를 건드리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면 우리의 문화유산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것이다. 보존의식이 희박한 우리 민족들 자기 조상의 유품을 간직하고 있는 현대인이 몇이나 되는가. 조상들의 유물을 외국에 예사로 팔아 넘기는 사람들.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옛 문화재를 뜯어 헐어버리고 시멘트로 개조해 놓고 태연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문화재를 맡기는 우리들의 무감각 또한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보수하는데도 그렇다. 문헌에 의한 연구를 충분히 하여 자재나 형태나 옛 그대로 해 놓는것이 옳지 않을까. 시멘트 문화는 우리의 진실한 문화가 될 수 없다. 백년을 넘기지 못할 자재가 시멘트가 아니겠는가!

반영구적인 자재로 복원하는 성의를 보여줘야 할 아량이 있어야 하지않을까. 특히 고궁이나 사찰 등은 더욱 그렇다. 신라 문화의 집결지인 경주문화재 복원 상태가 그렇고, 백제 문화권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덕사의 대웅전, 칠명굴을 몇번 건어 내렸다는 건축물인데도 건재해 있다는 사실과 대웅전 앞에 세워진 웅장한 새로운 건물과의 불균형상태를 볼 때 아쉬움을 금할길 없다.

우리 홍주골 사람들만이라도 서로 많이 연구하고 보존하고 다듬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얼을 심어 주고 싶은 생각이다. 또한 갖추지 못한 아쉬움을 반성하며 서둘러 말고 하나하나 복원해 나가야겠다. 홍주성의 완전복원, 남산공원의 우아한 복원, 산재되어 있는 유물보존, 홍주 박물관건립 등등……. 술한 과제가 남아 있다.

○ 저자약력: 박 문 신(朴文信) ○

- 1924년 충남 홍성 출생
- 시집 「石榴」, 「白月山の微笑」, 「天空을 받들어」, 「마음을 닦고 싶었는데」, 「잃어버린 내이름」
- 한국문협, 충남문협회원, 시도 동인
- 가람문학회 홍주문학회 회원
- 1991년 「문학세계」를 통해 등단
- 홍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 「홍주문화」지 편집위원
-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38년간 근무후 정년퇴임



일월산의 광명(光明)문화

배 동 순

— 목 차 —

- 1) 백월산의 밝(白)의 상징
- 2) 월산의 달(月)의 상징
- 3) 일월산의 광명(光明)의 상징
- 4) 일월신앙과 원(圓), 방(方), 각(角)
- 5) 일월산명의 삼태(三態: 月山, 白月山, 日月山)
- 6) 일월산제와 광명문화
- 7) 일월산에 광명문화가 자리하는 이유
- 8) 일월(광명)산하의 풍류도 문화
- 9) 천부경 섭리와 율판문화가 함께 열린 광명문화
- 10) 광명(율판)문화의 성지로 부각하는 일월산
- 11) 광명문화 도해 해례(율판, 바둑판, 64괘, 원방각)

1) 백월산의 밝(白)의 상징

백자(白字)는 사실상 신명(神明)을 의미하는 고어 「붉은」의 「붉」자의 리양종성중 「ㄹ」이 숨어버린 「북」의 사음자(寫音字)로서 무릇 이 명칭을 가진 산은 고신도(古神道)시대에 있던 신앙대상이 되던 산이다.

원래 한국말에서는 양종성(兩終聲)을 가지는 말이 발음습관이나 어격배열(語格排列)상의 형편을 따라서 양자중의 하나가 소실되는 음운법칙이 있다. 이를테면 닭(鷄)을 서울에서는 닭, 남방에서는 달이라 하고 돌(石)을 서울에서는 돌, 남방에서는 독, 앞(前)을 서울에서는 압, 남방에서는 알이라고 한다. 또한 앞(疾痛)을 형용사로서는 압, 동사로서는 알, 곱(饑餓)을 형용사로는 곱, 동사로 골이라고 하는 이유와 같다.

이 「붉」에도 이 법칙이 적용되어 「불」또 「북」으로 전변한 어형이 여럿이며 한

편으로는 「·」모음은 본디 다기(多岐)한 분화성을 내포한 음으로서 옛날에 이 모음으로 표시된 음은 지금에 「ㅏ, ㅑ」의 여러 형으로 전변하였다. (예는 생략함)

다른 한편 한자의 사음(寫音)상 형편에 의하여 산명의 밝에는 실로 허다한 이형이 등장하였다. 이에 백(白), 박(朴)등이 밝의 리음이 숨어버린 형인데 또 기음이 숨어진 형은 불이 되어서 발(鉢), 벌(伐), 불(弗), 팔(八)등으로 사음되고 바뀌어 부르도록 되어서는 비로(毘盧), 부로(夫老), 풍류(風流), 반룡(盤龍), 반야(般若), 백록(白鹿)등의 차자(借字)를 썼다.

저 묘향(妙香), 금강(金剛), 계룡(鷄龍), 속리산(俗離山)에 가보면 상봉에 붙은 비로(毘盧)가 그 예이다. 그리고 백산에 대하여는 백산(白山), 태백산(太白山), 불함산(不咸山)등이 있고, 일본에 가면 백(白)자가 들어간 산명, 지명이 무려 2,700개가 넘는다 한다. 이렇게 백(白)을

신성시(神聖視)하던 백의민족이 일본에 가서 고국의 본산 백(白)자를 따서 신성한 산, 신성한 봉우리, 신성한 땅(地名)이라 명명한 것이 태반이라 한다.

홍성읍의 진산인 백월산(白月山)도 “붉은 달산”임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밝의 어원을 캐면 몽고어의 텡그리(Tengri)에서 왔다 한다. 이 텡그리라는 말은 세가지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다. 즉, 「하늘, 신, 대가리」이다. 우리말에서 머리를 대가리라고 하는데 이는 텡그리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텡그리는 슈메르어의 하늘과 신을 의미하는 「딩그르(Dingir)」와 그 어원이 같다고 보아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것인 동시에 우랄·알타이계 언어 속에 널리 퍼져 있는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텡그리」라는 말이 남성원리에 속하는 「하늘, 신, 머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다.

육당 최남선은 밝문화는 「그 특질로서 신산(神山)·신읍(神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대개 밝안, 텡그리(Parkan-Tengri)의 명칭을 붙였으며……」라고 하여 밝(Parkan)은 텡그리(Tengri)와 더불어 하나님을 시사하고 있다.

백두산(白頭山)은 「밝대가리뿔」인 셈이다. 텡그리는 높은 남성원리를 대표하는 말이다. 머리와 눈은 또 하늘과 해의 상징이기도 하다. 육당은 「밝」은 일본의 해를 의미하는 「히코(ヒコ)」와 같다고 하면서 「해와 밝」, 「하늘과 밝」과도 일치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밝」은 유감없이 남성원리를 모조리 포함하고 있다. 「밝」문화의 등장과 함께 환웅과 단군의 남성문화가 등장하면서 우리 역사에 의식(意識)의 시대가 움트기 시작했다.

「붉은 밝」, 「흰 밝」, 「누른 밝」 할 것 없이 「밝」은 광명의 역사요, 화쟁(和鎗)을 이루는 역사였다. 밝의 제2기라 할 수 있는 「흰 밝」에 원효가 나타났고, 이 고장

에서는 태고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가 나타났다. 제3기의 「누른 밝」에 퇴계(退溪)가 나타났고, 이 고장에서는 남당 한원진(南塘 韓元震)이 나타났다.

2) 월산(月山)의 달의 상징

달의 고어는 “보름”으로 보고 있다. 보름은 음력 15일을 뜻하면서 만월(滿月)이 되는 날이다. 알타이족어나 고구려어에서 “높다”라든가 산을 뜻하는 어근 “달(達: tal)이 모음 교체 및 접사 첨가등에 의하여 들다(擧), 달다(懸), 달(月), 다락(樓) 등으로 분화 발달하였다.

만주나 여진어 등 퉁구스어권에서는 바(bya:月)가 있는데 이는 바(ba)에서 변한 말이고 본디는 발(月)로 여겨진다. 국어에서도 원래는 보름의 어근 “불-”이 달의 뜻을 지니고 있었으나, 달(月)이라는 말의 신진세력에 밀려 보름(月)의 뜻이 축소되어 15일 즉, 달이 꼭차는 날만을 가리키게 된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일본어 쓰키(tsukki:月)는 국어 “달”이 변한 말이다. 보름달의 본 뜻은 “달·달”로 보인다. 만주어에 바다리(Pyatar:每月)가 있다. 국어의 달이 만주어에서 복합어 일때에 “다리(月)”로 나타난다. “바다리”는 달달(月月)의 뜻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이상은 서정범, 김문창의 네사람의 설을 인용했다)

달은 농업과 관련된 풍요를 상징할 뿐 만아니라 시간의 질서와 시절의 운행 섭리까지도 아울러 상징하고 있다. 그것은 농어촌 사회에서 생산력과 생활력은 달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이다. 세시풍속과 맺어진 달에 대한 민속신앙 행위는 상원(上元) 곧 정월 대보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달은 시절 운행의 이법을 상징하는 것 외에 농사의 풍요로운 힘, 여성 생산력의 근원등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이들 세시

행사중에 용의 알뜨기나 다리밟기를 유의해 살펴보면 달은 물이나 여성과 맺어져 풍요로운 생산력과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양사상 특히 중국이나 한국의 고전에서는 달을 흥망성쇠, 영생 재생의 상징으로 보아 왔다. 그 이유는 달은 차면 기울고 기울었다가 다시 찬다. 완전히 기울면 사흘동안 그 모습을 감추어 버린다. 이것이 달의 기울고 차는 이치이지만 그것이 주기적, 항구적으로 되풀이 되기때문에 달은 삶이나 시절의 영고(榮枯)와 기복(起伏) 흥망성쇠를 상징한다.

또 달이 사흘동안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죽음으로 비유되는데 비하여 차고 기울음은 탄생에 이은 성장과 노쇠에 비유됨으로써 달은 「중단있는 영생과 재생」을 상징한다.

3) 일월산 광명(光明)의 상징

일월산의 상징이 바로 아침 해와 같은 밝음이요, 여명이며, 만물이 생동하는 기운을 보이는 산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지시하는 산명의 자의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광명을 뜻하는 원천은 해에 있고, 그 광명을 밤에까지 지속시켜 주는 것이 바로 달이다. 해와 달이 공존하므로 일월산(日月山)이라 했다.

광명의 원천이 되는 해와 달을 산명으로 삼은데는 하늘의 뜻이 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천장지비한 하늘 뜻이 산명을 통해서 투출되어 나온 소이는 모르지만 광명의 작용만은 알 수 있다. 산이름에 해가 있고, 달이 있으니 일월광명이 이보다 더한데가 없다. 그래서 단군이래의 광명문화가 일월산의 기맥을 통하여 조양되어 왔다.

이렇게 신성한 자리가 되므로 일월산에는 광명문화의 증표가 놓여져 있다. 광명은 빛인데 이 빛은 광명의 입자로서 굳게

여물어져 돌로 화했음을 암석신앙에서도 알 수 있다. 『인간은 단순한 돌을 숭배해 왔다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은 돌이 자신과는 다른 「그 어떤 것」을 표상하는데 한해서만 그 돌을 숭배하면서 영적작용의 도구로서는 자기방어를 위한 에너지의 중심으로 삼아 왔다』 이 영적작용의 돌산이 바로 일월산이라면 일월산의 산명에서 거의 절반은 수궁이 갈 것이다.

광명을 생명으로 삼던 단군의 사랑. 단군의 사상이 가장 자연스럽게 하늘의 법리대로 놓여 있는 곳이 바로 몇 곳 안되는 일월산에 있다면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그러나 천명을 알고 단군님의 광명이세의 조림지를 살펴보려 탐구하는 사람은 일단 이곳 일월산도 다녀 갈만한 곳이다. 그러나 지세가 조밀하지 못하고, 백두산, 금강산, 구월산, 마니산도 아닌 이곳이 허다한 명산대천을 제외하고 신성한 곳이라고 자랑은 못하지만 산명으로 하여 광명문화의 주변 어느 위치에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해돋이에 의해 신선한 빛과 밝음을 상징하면서 어둠을 몰아내는 힘을 작용하는데 일월의 존재 가치가 부여된다. 어두움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나는 힘은 다시 남극, 재생을 상징한다.

고조선이란 국호에서 아침조(朝)자도 이와같은 복합적인 상징성을 함유하고 있다.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박(朴)자도 처음난 아침 해와 같이 밝(明)다라는 뜻이고, 고구려 시조 동명왕(東明王)의 동명도 해뜨는 동녘처럼 밝다는 뜻이다. 그리고 원효(元曉)도 첫새벽 아침의 이미지로 지어진 이름이다. 아침은 새벽과 함께 여명(黎明) 곧 갓밤이의 현상으로 새벽 곧 천지창조의 시작을 의미한다. 하늘과 땅이 맞붙고 암흑에 휩싸여 혼돈된 상태에서 음양상통으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한 다라는 의미부여지가 많다. 예를들면 백두산, 금강산, 구월산, 마니산, 백(白)자

산, 일(日)자산, 월(月)자산, 삼신산, 봉래산, 영주산 등 여러 곳이 있다.

4) 일월신앙과 원(圓), 방(方), 각(角)

고대의 일월신앙은 고려와 조선을 거쳐 민속신앙화 되었다. 무속신앙에서 남녀의 짝으로 표현되는 일월천신(日月天神)은 연오랑 세오녀라는 신라적인 “일월의 정”이 재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일월신앙의 자취는 제주 무속에서 풍부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제주 무속에서는 날궁전, 달궁전의 일월신외에 일월조상이 있다. 그중에서 날궁전과 달궁전은 신격화된 해와 달이지만 일월조상은 집안 또는 씨족의 수호신으로서 조상에 붙은 일월은 일종의 수식적인 관형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늘날 기도를 할 때 “천지신명이시여! 일월성신이시여!”라고 한다. 이것은 해와 달이 우주론적인 차원의 신격으로 섬겨짐을 의미한다.

천지신명과 일월성신은 민간신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연 신격(神格)들이다. 하늘과 일월(日·月) 곧 해와 달은 원의 도형으로서 종교적 의미 또는 종교적 신앙대상으로서 가진 속성을 원이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과 해, 달에 기탁하여 간직하게 된 신격 신이(神異)합의 도형이 구성된다.

☞ 원(圓)의 상징

중국인들은 음력 3월19일에 해에게 바치는 의식과 함께 음력 8월15일에는 달에게 믿음을 바친다. 이 날을 단원절(團圓節)이라 부르고 월병(月餅)이라는 둥근 달떡을 먹는다. 원이 해와 달과 맺어져 인간의 종교적 심성을 촉발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국기에 태양의 원형을 쓰고 있다. 이는 원의 상징이 일본에서는 극대

화 되었음을 말한다. 그들의 국기명 또한 하노마루라 하여 해의 원을 상징한다. 해를 바라보고 있는 나라, 해가 돋는 땅으로 인식된 일본의 국토관이 원과 깊게 맺어져 있다. 신령스러움 거룩함이 일깨우는 충족감, 만족감, 풍요 등을 표상하는 원은 한국인의 종교 심성의 도형이라는 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용왕고사나 용왕먹이기를 해돋이때 함으로써 해의 원형을 통해 새벽 기운과 해 기운의 역동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믿었다.

☞ 방(方)의 상징

방(方)은 이차원선상(二次元線上)의 연속선(지속:연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평면의 사방(四方)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방은 대지인 땅을 의미하는 동시에 육체인간(땅: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방은 2가 되어 반극(反極)을 형성한다. 이 두 극은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양극을 통하여 미, 추, 대, 소, 상, 하, 귀, 천 등의 분별이 생기게 된다. 그 형상은 다기다단하지만 도상원리로 만왕만래하는 방의 체와 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 기본도는 용도(龍圖:하도), 구서(龜書:낙서), 태극, 사상(四象), 팔괘(八卦), 그리고 2진수가 나타내는 모든 것이 방(方)이 수놓은 현상이다. 이 모든 방(方)의 수리와 모양은 일월이 운행하는 에너지의 순환법칙에 의존하고 있다. (이하생략)

☞ 각(角)의 상징

원(圓)은 1이 되어 무극이고 방(方)은 2가 되어 반극이며, 각(角)은 3이 되어 태극이다. 삼일의 체는 1이요, 그 용은 3이다. 혼묘가 한 둘레에 있으니 체와 용은 갈라질 수 없다. 태허에 빛 있음이여 이것은 신의 형상이고 대기의 오래도록 있음이여 이는 신의 화로서 참목숨의 근원이자 다. 해와 달의 아들은 천신의 충(衷)에 있

으므로써 비추고, 이로써 원각을 이루며 세상에 현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角)은 3차원적 통일체인 태극을 나타낸다.

2차원적 양극현상을 극복하고 태극원리를 생명원리로 하여 3극을 통일하는 위치에 있다. 1이 3하는 3각의 통일원리가 아니면 하늘의 실체(생명, 존재, 생기)가 없고, 또한 하늘의 성(성(性)·명(命)·정(情)이 있을 수 없고 지·정·의의 삼진(三眞)도 존재할 수 없다.

5) 일월산명(日月山名)의 3태(三態) (月山·白月山·日月山)

① 지지에 나타난 월산명(得體)

- 세종지리지(世宗地理志) 월산(月山)
- 해동산경(海東山經) 월산(月山)
- 대동여지도원본(大東輿地圖原本) 월산(月山)
- 동국여지(東國輿地志) 全國地理志 월산(月山)
- 여지승람(輿地勝覽) 월산(月山)
- 호서읍지(湖西邑誌: 1871) 월산(月山)
- 결성현지 및 읍지(1~5권) 월산(月山)
- 홍성읍지(洪城邑誌) <二> 월산(月山)

② 지지에 나타난 백월산명(得化)

- 홍성읍지(洪城邑誌) <一> 백월산(白月山)
- 홍성읍지(洪城邑誌) <三> 백월산(白月山)
- 홍성읍지(洪城邑誌) <四> 백월산(白月山)
- 홍성읍지(洪城邑誌) <五> 백월산(白月山)

③ 지지에 나타난 일월산명(得明)

- 홍성군지(洪城郡誌) <1980. 12. 15> 일월산(日月山)
- 한국지명총람<1974. 11. 30> 일월산(日月山)
- 지도 1/25000 · 1/5000 일월산(日月山)

6) 일월산제와 광명문화

☞ 일월산제(日月山祭: 月神祭: 月亮祭)

모든 기록으로 보아 곳의 원류는 산신제(山神祭)였음을 알 수가 있다. 마을의 안녕과 풍작을 요구하는 동제가 과거 제

천의식이 5월에서 정월로 옮겨진 것은 시대의 변천을 의미한다. 천군들의 제일 큰 천제가 이루어진 곳은 창조주신인 모신(母神, 月神)이 있는 월산(月山)의 성역지대(聖域地帶)였을 것이다. 천지신에 대제를 올리는 시기는 정월이고, 그 장소는 모악산계(母岳山界)나 월산(月山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진다. 이 고장의 모신제(母神祭·天神祭)는 특히 산명이 가리키는대로 월지국의 주신인 월신(月神, 月亮)을 제사지내던 곳으로 보아진다. 홍주가 원시사회의 월지국다운 것은 충청남도에서 오직 하나의 월산(月山)이라는 점이다. 이 월산의 이명이 백월산이요, 일월

산이라는 데에 서다. 그뿐 아니라 월산(月山)하의 동쪽 방향으로 월자지명이 20여 곳이나 잔존하여 있다.

선도산신모(仙桃山神母)의 설화 모티브에는 신성혼인이거나 남신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개국의 신들은 독생(獨生)하고 있는가? 이 월산에는 월산신의 신화는 없지만 천공신(天空神), 월량

신(月亮神), 지모신(地母神), 곡모신(穀母神)이라는 맥락이 있는 듯하다.

월산에 활모(割畝)개가 있는데 실은 할매고개로서 월지국이 열릴때 곡모산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진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현시대에는 일월산이라 많이 호칭하고 있다. 사실은 일월산이란 맥락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 그 증거는 월산하(月山下)에 일월사(日月寺)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에서는 산신각에 일월신을 단독으로 모시고 수시로 제를 올리고 있다. 일월산 아래에는 '일월사' 말고 여러 절이 있으나, 아직 "백월사", "월사"라는 절은 없다.

☞ 일월산제 형태의 변화

- 무속-단군조(신단수)

- 무속-삼한시대
(월신제: 제천의식, 맞이굿)
- 무속-삼국시대(월산제: 천군등에 의함)
- 무속+불교-고려시대
(월산제: 무격과 제관에 의함)
- 동제+유교-이조시대
(월산제+홍가신제: 무속의 쇠퇴)
- 유불선 혼합-근대
(홍가신제: 전통토속신앙의 쇠퇴)
- 불교-(일월사의 산신각에서 일월제 시행)
※ 여기에서 광명문화의 밝기를 기원하고 있다.

7) 일월산(日月山)에 광명문화가 자리하는 이유(지명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 산명상으로 보아
- 1) 초기 산명 → 백월산(白月山) ↔ 「복」을 상징 — [光明]
 - 2) 중기 산명 → 월산(月山) ↔ 「복」을 상징 — [光明]
 - 3) 현재 산명 → 일월산(日月山) ↔ 「복」을 상징 — [光明]

※ 월산(홍성지역) 월(月)자 지명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음(30곳 이상)

2. 위치상으로 보아
- 1) 백십자(白十字)의 중앙 = 횡(橫)으로 白月山(청양) 白月山(홍성) 白화산(태안)
 - 2) 월십자(月十字)의 중앙 = 종(縱)으로 九月山(황해도) 月山(홍성) 月出山(전라도 영암)

3. 형세상으로 보아
- 1) 지세상(地勢上) …… 내포문화의 발상지이면서 중심지
 - 2) 지정학상(地政學上) …… 서해문화권(西海文化圈)의 중심지
 - 3) 산맥상(山脈上) …… 삼극(三極)의 중심지

4. 역사상으로 보아
- 1) 상고시대 …… 진번군의 고지(故地)
 - 2) 삼한시대 …… 마한의 왕도(馬韓의 王都)
 - 3) 고려·조선시대 …… 홍주목의 중심지(14군 관할)

5. 인물활동면으로 보아
- 1) 충절의 고장 제1번지 …… 최영장군, 성삼문, 한용운, 김좌진, 김복한, 이설……
 - 2) 역대 부흥운동의 중심지 …… 진번추방운동, 백제부흥군운동, 임란의병, 갑오, 동학, 병오, 의병
 - 3) 호락학파의 중심지 …… 한남당 실학의 선구자

6. 사찰명으로 보아
- 1) 일월사 …… 일월산 아래에 있음

8) 일월(광명)산하의 풍류도(風流道)문화 자연의 원리로 볼때 해(日)는 원천적인 하나님(父)을 의미하고 달(月)은 어머니를 의미하며 이 남녀가 하나의 부부로서 양의가 태극을 중심으로 일체를 이룰때 사상(四象)이라는 동서남북, 상하좌우의 천지만물이 생길 기반이 확립되고 기후와 지기의 변화로 인해 만물을 낳을 수 있다.

해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물에 따뜻한 빛을 주어 육성하고 달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달에 의해 조수간만의 차 즉, 지구의 월경과 생물의 월경주기를 주어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태반을 비옥하게 조성한다. 사람은 태양빛을 얻음으로써 농경농사, 인간창조의 농사를 지어 하는바 없는 듯하면서 스스로 생육케 한다.

풍(風)은 하나님 태양을 의미하고 월(月)은 어머니 달을 의미할제 이 조화의 도(道) 풍월도(風月道)가 되어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진리를 실현케 한다. 해와 달의 빛 즉 광명(光明: 밝)을 진산(鎭山)으로부터 직접 지기를 받는 이 고장은 특히 광명인(光明人)이 사는 충절의 고장이 될 수 밖에 없다. 광명인이라고 하는 뜻은 진리에 의해 빛나는 존재적 사유인을 가리킨다. 광명족, 광명인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남편)의 아내가 되는 순음 광명체로서 태양에 대하여 태음으로 응하여 천지만물을 낳게 하는 달(어머니: 여자)의 민족이며 사람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이 아침에는 조양문 앞에서 태양 경배하고 저녁에는 떠오르는 달에게 경배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풍월도가 그대로 몸에 배어 하나님을 섬겼음을 알 수 있다.

9) 천부경 섭리와 율판문화가 함께 열린 광명문화

광명족의 풍월도는 천부경 81자 섭리에 맞추어 해의 기운에서 일시무시일 달의 기운에서 일종무종하며 주야로 순환하는

생생지기가 만왕만래 불식하는 도이다. 그러므로 풍월도는 우주인자·생물의 유전인자에 있는 DNA와 같이 생명줄을 따라 활동하는 도이다. 이러한 도가 광명족에게 특히 일월산의 영역에 있는 홍성인에 많이 오고 있다는 증표는 일월산 그 자체가 홍성의 진산이기 때문이다.

풍월도의 진리가 농후하게 일월산과 관계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표(실증)는 일월산(백월산)을 중심으로 한 용봉산, 가야산, 오서산, 은하봉, 보개산, 삼봉산, 형산, 청룡산, 왕자산에 광명족 시원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한 예로서 용봉산의 비신불(석불)이 서 있는 광장이 하나의 천궁도(天宮圖)라 할때에 그 주위에는 율판을 벌린 바위들의 상징이 너무나 다기다단 하다.

백월산(일월산)에 오면 천부경의 상징 원·방·각의 바위들이 아득한 옛날의 우리민족의 상황을 알려 주는 듯 천장지비하게 법으로 표출되어 있다. 오서산(烏棲山)은 그 옛날 오성산(五聖山)으로서 성인들의 주거지인 이곳에 백월(일월)문화의 부두처(符頭처)를 정해 놓았다. 형산(衡山)에는 고대사회(단군시절)때의 치정(治政)과 문화에 있어서 그 잘못됨이 호리의 차가 없도록 저울질을 잘하여 중용의 덕이 영세 무궁토록 저울대를 꽂여 놓은 곳이다.

결성의 왕자산 아래 석곳이(石串)에는 원시 부석신앙(浮石信仰)의 자리가 이제껏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일종무종일로서 율판놀이가 끝나는 곳이기 때문에 큰 누에고치를 세워 두었다. 또한 이웃 강남개(성호리)에는 고대 부족국가가 열리던 무렵 하늘의 칠성에게 제를 올리던 성제(星祭)바위가 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남산(南山:만해 한용운동상 옆)에는 소금산 배바위가 있는데 그 옛날 원시사회가 열리던 당시의 어염(魚鹽)을 실어 나르던

배를 매어 놓은 바위가 있다. 그 곳 청광리로 흐르는 냇가 상정천이 되어 웅암포를 통하여 천수만으로 흐르는 곳에 유명한 독배(瓮浦)가 있다.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일본의 개국조 아마데라스(天照) 천황의 아우 스사노 오노미코도가 이 독배에서 반선(盤船)을 타고 일본으로 간 곳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백월문화(백달문화)가 자리한 이곳은 단군문화의 범도가 남아 있다.

10) 광면(甍面)문화의 성지로 부각하는 일월산

일월산이 광명문화의 성지(聖地)로 부각하는 데는 몇가지 중후가 뒤따른다. 그 보기를 몇가지로 줄여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월(日月)산의 이름이 광명이라는 뜻이다. (日+月=明)

해와 달이 함께 조립하니 주야로 광명이라 이를 가리켜 광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해(日)와 달(月) 옆으로 나란히 하면 명(日+月=明)자가 되니 이는 광명의 체이다. 해와 달이 함께 어두움을 씻어내는 곳이 홍성이며, 천혜의 선민이 살아야 할 자리이니 누라서 복지(福地)라 아니할 수 없다.

② 일월(日月)산이 용사하는 것은 에너지가 순환(循環)한다는 뜻이다.

이는 역(易)이 지니는 천문학적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우주만물이 변화하는 시간 즉 12라는 자로 켈수 있는 것이므로 일월설(日月說)이 되니 도마뱀설의 연장선에서 다뤄지는 분야이다. 도마뱀은 하루에도 여러번 변하니 변역(變易)의 원리, 순환(循環)의 원리가 된다. 그러므로 일월(日月)이 상하(上下) 합하면 역(易)이 되니 이 역(易)속에는 천하만물의 무엇이든 지 역리(易理)에 적용 안되는 것이 없다. 천장지비한 역학의 샘에서는 천기의 운행이라든가 지지의 섭리라든가 생물의 유전

인자 DNA세계까지 무불통찰 할 수 있다. 누가 일러 밝문화의 원천지라고 하든가? 그 용의 수리는 무궁무진하니 누가 밝문화의 문앞에서 개구(開口)하겠는가?

③ 일월(日月)이 음양의 체로서 주야로 돌듯이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에너지의 공급원이다.

에너지는 동적에너지로서 이 우주에 태양만한 공급원을 덮을 것은 없다. 최상급의 에너지가 주야로 돌고, 일과 월의 순환은 무궁불식이니 이런 차원 높은 산 이름이 이 일월산 말고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아예 찬사를 불허하는 곳이다.

④ 해(日)는 빛이고 달(月)은 조석운동을 하니 생생지덕이 무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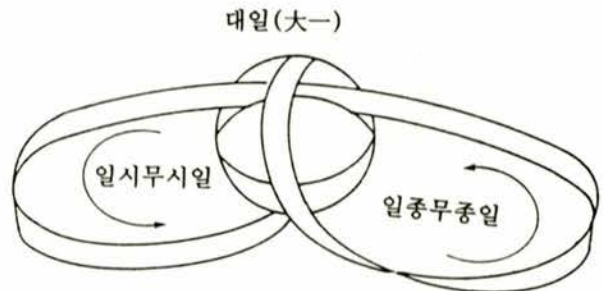
달은 용으로서 지구의 위대한 청소부노릇을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조수물의 경도작용은 모든 만물에 생육의 근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교묘한 달밤에는 염색체의 교구가 잘 이루어지고 뇌수의 사고활동이 활발해져 육체와 정신이 잘 조화된다.

⑤ 일(日)과 월(月)이 천부경의 섭리대로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하면서 지구의 경위도를 따라 비단을 짜고 있다.

차라리 백문이 붙여일견이란 말보다는 뫼비우스의 DNA고리도를 대신 부침한다.

일시무시일(一始無始)은 일종무종일(一終無終)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일시무시일(一始無始)은 일(一)이 시작되되 시작이 아니며, 일종무종일(一終無終)은 일(一)이 끝나되 끝이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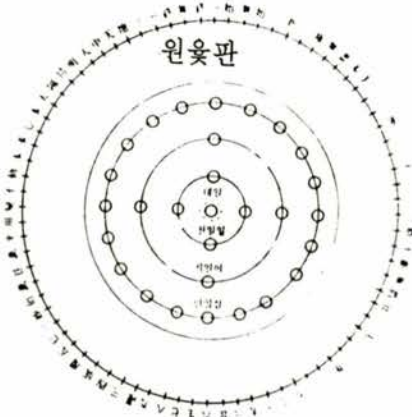
이를 도해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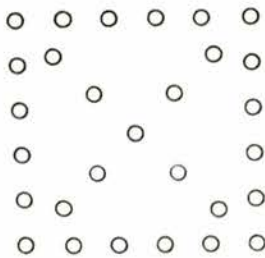
㉔ 백월(白月)산이 삼극(三極)의 머리 이름이 되니 하늘의 28수가 주기따라 조립한다.

다음 천부경 81자 원주도 안에는 28수의 별이 옷판형식으로 분포되어 있다. 삼극의 천지인(天地人)수리가 천상, 지계, 인간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다.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 28수와 옷판도



- 땅(方)의 천궁: 옷판



「옷판의 외곽이 원형일때는 하늘의 천궁(天宮)이 되고, 사각형이 될때는 땅의 천궁이 된다.」

11) 광명문화 도해, 해례(옷판, 바둑판, 64괘, 원방각)

1) 옷판의 원리

옷판의 29수에서 중앙 1은 곧 36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합수는 $28 + 36 = 64$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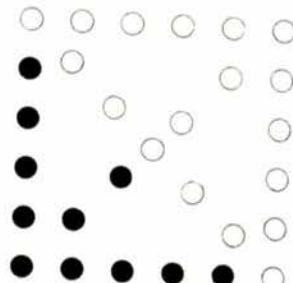
일적십거도의 외곽을 둘러싸는 점은 36

이다. 일적십거도에서 28의 중요한 역할은 28을 경계로하여 안과 밖이 모두 36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삼(一三)과 삼일(三一)의 경계선이라는 의미가 있다. 옷판의 중앙 1과 28에는 이러한 역경과 삼일신고의 깊은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현묘한 도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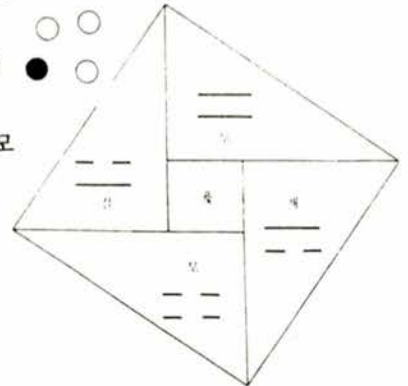
이제 옷판과 도개겔옷모인 옷말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옷판은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며, 자연계의 태풍의 눈과 같은 존재로서 불변의 원리이다. 다시말해 천부경 일적십거도의 중앙 36이 곧 옷판이 된다.

그렇다면 기(氣)인 태풍의 움직임은 무엇일까? 그것은 '도, 개, 겔, 옷, 모'로 알려진 말의 움직임으로 64괘가 되어 필변의 원리가 된다. 즉 천부경 일적십거도의 흑점 30, 백점 34, 합 64가 곧 옷말의 움직임이다. 배달국 천왕께서 옷놀이를 만들어 한역을 강연하신 것이 천부경이라 함이 바로 천부경의 일적십거도가 일으키는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즉 팔괘와 64괘의 근원으로서 모든 역(易)의 본 바탕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① 태극(太極)과 도개겔옷모와 사상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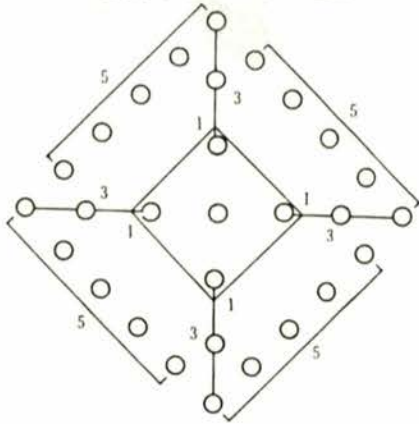
도 개 겔, 모
옷 →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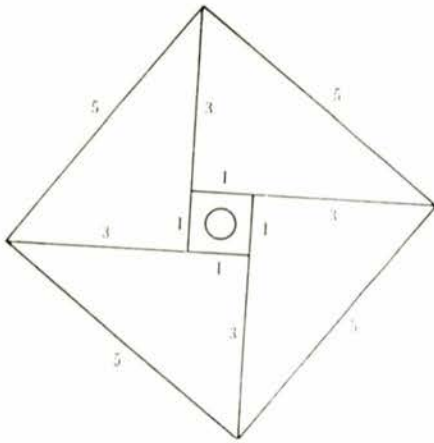
② 윗판과 땅의 천궁도(天宮圖)

다음 그림의 윗판과 천궁도는 완전히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천궁도(天宮圖)의 수(數)를 모두 더하면, $5 \times 4 + 3 \times 4 + 1 \times 4 = 36$ 이 되어 천궁의 수 36이 된다.

▼ 윗판에서 유도되는 천궁도



▼ 천궁도(天宮圖)



윗판의 외곽이 원형일 때는 하늘의 천궁(天宮)이 되고, 사각형이 될 때는 땅의 천궁이 된다.

2) 바둑판의 원리

바둑판은 동양 삼국의 각 가정마다 하나 짚은 비치해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둑판이 표현하는 도형처럼 널리 보급된 도형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것도 인류문명이 시작되면서 함께 보급된 도형이니 그 역사

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살아있는 인류 최고의 유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바둑판에 인류 최고의 경전인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올려 놓으면 바둑판 제작자가 무엇으로 바둑판이라는 도형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바둑판의 원리는 '현묘지도'의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뿐만아니라 앙코르와트의 피라미트의 구조를 그대로 설명하며, 그 피라미트의 원리인 고대 인도의 힌두교의 원리도 설명한다.

① 천부경(天符經)과 바둑판

천부경의 81자를 바둑판 위에 구성하면 ②와 같은 모양을 얻게 된다. 이는 천부경의 일적십지도를 확장한 그림으로 $81 \times 4 = 324$ 가 되어 가로·세로 18×18 의 도형에 천부경을 다시 배치한 것이다.

천부경의 글자 하나 하나는 바둑판의 4개의 점을 각각 차지한다. 이는 천부경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자료68)과 같이 천궁(天宮)이 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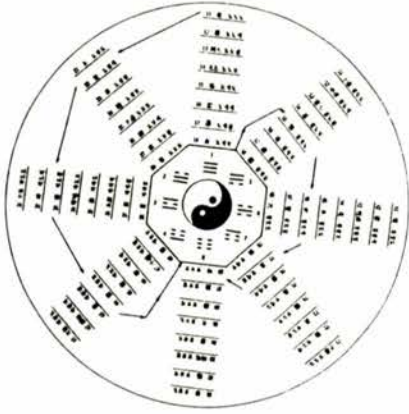
▼ 바둑판 위의 천부경(天符經) 81자

一	始	無	始	一	所	三	極	無
虛	本	天	一	一	地	一	二	人
一	三	一	極	十	距	無	廣	化
三	天	二	三	地	二	三	人	二
三	大	三	合	六	生	七	八	九
遠	三	四	成	禮	五	七	一	妙
衍	萬	住	萬	家	用	變	不	動
本	本	心	本	太	陽	照	明	人
中	天	地	一	一	終	無	終	一

3) 64괘의 도해(도·개·결·모·윗에 의함)

8괘별로 8개의 괘가 배당되며 11→22→33→44→55→66→77→88의 순으로 태극이 이루어진다.

▼ 팔괘(八卦)별 64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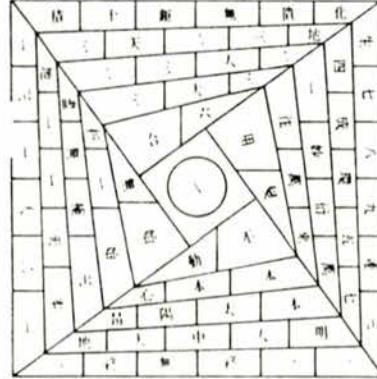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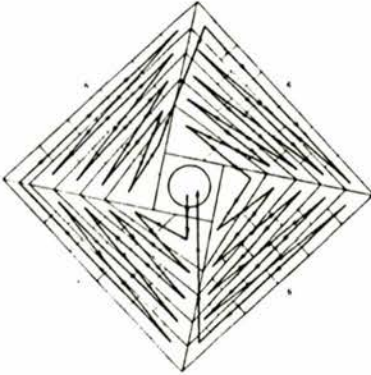


▼ 용도팔괘수에 의한 64괘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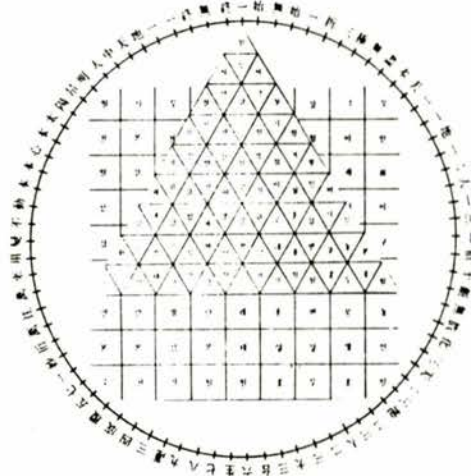


4) 마음모도에 수용된 전기 회로망과 81자 배열도

▼ 36중에 전기회로망과 81자가 꼭 차 있는 도



이 마음모는 가로·세로가 각각 6이 되어 넓이가 $6 \times 6 = 36$ 이 됨을 기억하자.



▲ 천부경 81자를 수용한 원방각도



용화사, 산혜암, 용운사

박 문 신

■ 용화사(龍華寺)

• 소재지: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용화사는 홍북면 중계리 노변에 위치해 있으며, 백월산맥 북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홍성읍에서 서문통 길로 서문을 빠져나가 백월산을 행해 가다보면 덕산통로 <참나무쟁이>로 달려간다. 월산리와 중계리 사이의 등을 넘게된다. 그 등성이에서 좌편 소로로 100m쯤 오르면 용화사가 눈에 들어온다.



▲ 용화사(龍華寺)

크고 작은 바윗돌로 장식된 둔덕위에 덩그마니 올라선 대웅전도 새로 중수한 건물이다. 아직 단청도 안한채 세워진 건물, 지금도 공사 진행중이다. 한편 서쪽 둔덕위에 자연석으로된 미륵보살상이 모셔져 있는데 신기하다. 이고장이 미륵굴이라고 하는만큼 땅속에는 많은 미륵보살상이 묻혀 있는데 그래서 옛부터 '미륵굴'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어쨌건 모셔진 미륵보살상은 신기하다. 정 하나 대지않은 자연석 그대로인데 그렇게 오묘할 순 없다. 처녀미륵상 이목구

비 모두 제자리에 붙어 있으니 말이다. 조물주가 만들어낸 신기한 자연 형성체인 미륵보살상이다. 어쨌건 신비경에 젖게 된다. 교통편이나 위치상으로나 절경으로 보나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풍부한 사찰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산재되어 있는 자연 조물로된 여러가지 상으로된 암석들을 잘 보존하여야겠다.

• 대웅전(大雄殿)

전면 3칸

측면 2칸 24평 팔작 기와지붕

1991년 신도들 동참으로 개축

• 요사채

1992년 양옥신축 63평.

신도일동 동참

• 불상(佛像)

① 약사여래

② 관음보살

③ 지장보살을 모셨고, 불좌 뒷면에 탕화가 걸려 있다.

• 석불(石佛): 미륵보살상 자연석으로 된 석상임. (높이 1m50cm)

■ 산혜암(山惠庵)

• 소재지: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1구

산혜암의 옛이름은 월산사(月山寺)이다. 법안스님이 이십여년전 주지로 부임하면서 산혜암(山惠庵)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른다.

홍성읍에서 서문통을 빠져나와 수덕사통으로 월산을 향해 달리다보면 월산리 2구 막바지인 고개 못미처 좌측에 산혜암 입구란 표지판이 서 있다. 그 소로를 약

400m쯤 오르면 청란사가 서 있는 광장이 나선다. 여기가 바로 산혜암 입구가 된다. 콘크리트 포장 108계단을 오르면 대웅전 앞에 이른다.

▼ 산혜암(山惠庵)



이 산혜암은 1,100여년전 신라 문성왕(신라46대)때 무염선사(無染禪師)가 창건했다고 전해온다. 무염선사의 법호가 백월보광(白月深光)이었는데 그 법호를 따서 백월산이라 하였다 한다. 월정사(月精寺)와 성주사(聖住寺)에 무염선사비가 서 있다. 무염선사는 무열왕 8대손이다. 애장왕 원년인 800년에 태어났다고 한다. 호는 무주(無住), 속성은 金, 시호는 대랑혜(大朗惠)이다. 강원도 설악산 오색석사(五色石寺)에 투신하여 법성선사(法性禪師)에 의하여 득도하였다.

부석사(浮石寺)의 석등(釋燈)에게서 화엄경을 배웠고, 신라 41대 현덕왕 13년에 당나라에 건너가 동방대보살(東方大菩薩)이란 칭호를 들었다. 문성왕 8년인 846년 귀국, 경문왕과 헌강왕 양대에 걸쳐 국사(國師)가 되어 불조

의 혜명(慧名)을 대오(大五)하고 진성왕 2년인 898년 88세에 입적(入)하였다.

• 대웅전(大雄殿)

1984년 신도 동참으로 중수

신도수 1,000여명 이라함

전면 3칸, 측면 2칸 25평, 팔작개와 지붕임.

• 불상(佛像): 도금목질불(鍍金木質佛) 2좌, 목불(木佛) 3좌

• 석불(石佛): 1좌(약사여래)

• 요사채

전면 3칸, 측면 2칸 33평, 맞배개와 지붕 신축중(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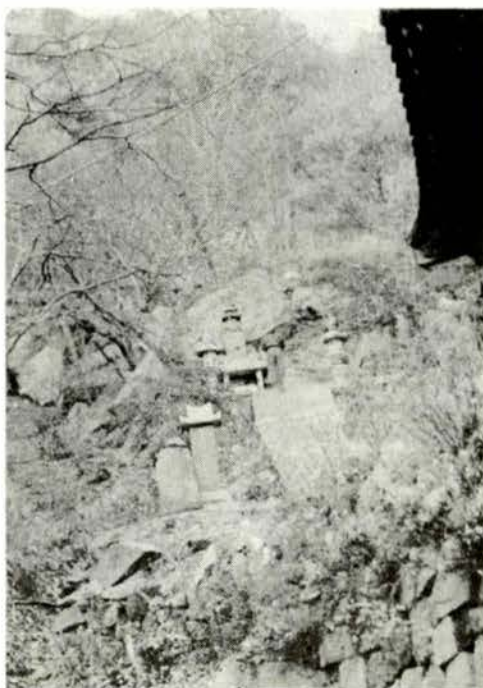
식당 2채

1991년 조립식 건물 36평

1992년 양식신축 32평

신축 식당 건물이 사찰 건물의 미관을 해쳐 아쉬움이 있다. 미적보수가 필요할 것 같다.

▼ 산혜암(山惠庵) 미륵불



■ 용운사(龍雲寺)

• 소재지: 홍성읍

월산리 1구 땃산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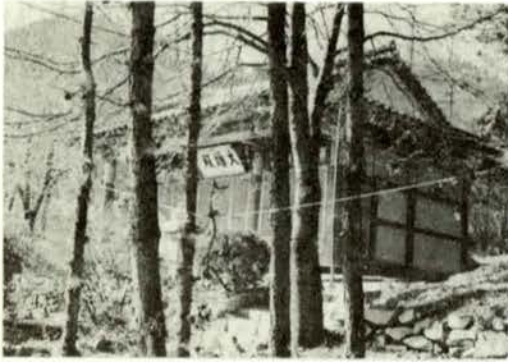
용운사는 백월산의 3대 사찰중의 하나로 전설과 사연이 많은 절이다.

행정구역상으로 홍성읍 월산리 1구이며, 백월산의 동쪽으로 볼 때 제일 남쪽에 흘러 내려온 능선을 더듬다 보면 배바위란 바위가 있다.

열두질 바위라 하지만 여섯질은 분명할 것이다. 그 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더듬어 내려오면 용운사가 있다.

이 절의 전신인 용제암(龍帝庵)의 옛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

▼ 용운사(龍雲寺)



되어 민간인이 살고 있고, 그 남서쪽 이웃에 20여년전에 다시 건축한 것이 지금의 용운사이다. 규모는 작지만 그런대로 정결한 불당이다.

지금도 용이 승천했다는 용천에서는 맑은 물이 솟음처 심방객들의 갈증을 풀어 주고 있다. 몇년전에 어느 지각없는 사람이 개를 잡아 이 용천에서 씻었다 한다. 그날로 물이 뒤집혀 비린내 진동하는 물이 되어 못먹게 되었던 것을 여러날 정성 드린 기도끝에 되살아 났단다.

농약통을 여기서 닦은 일이 있었는데 역시 물에서 농약냄새가 진동하여 못먹었던

▼ 용제암(龍帝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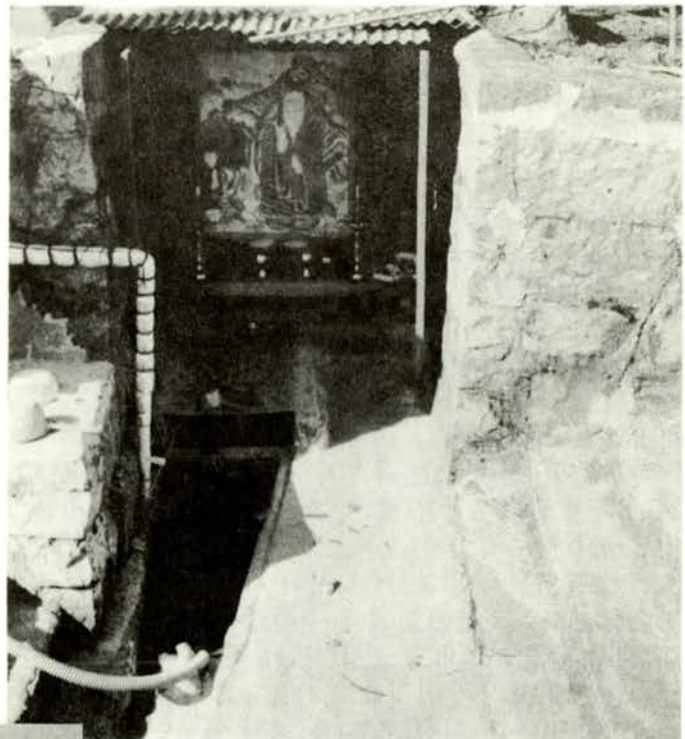


일도 있었다한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우물 뒷벽면에 용제의 영전을 모셨고, 개폐문을 해달았다.

용제암은 공씨 할머니가 암자로부터 시작하여 한때는 불광이 영험하여 문전성시를 이룬일도 있었다 한다.

현재의 대원각(大元覺) 주지스님은 반년전에 이 절을 인수해 왔단다. 몸이 불편하여 불심에 귀의하고 열심히 치성 드린 결과 몸도 완쾌 되었고, 여기에 아주 정착했다.

▼ 龍雲寺 龍泉



- 대웅전: 정면 3간
측면 2간 18평 팔작지붕 개와집
- 요사채: 정면 5간
측면 1.5간 15평 한옥 개와집
- 불상: 석가여래상, 관음보살상, 역사여래상을 모셨다.
- 주지: 이영옥 범명: 대원각
- 신도수: 200여명



창주사(滄洲祠)와道光齋(道光齋)

주 옥 로

● 한국 주가(朱家)의 연원(淵源)

중국 종보(宗譜)에는 고대 황제 전욱(顓頊)의 자손이며, 옛 성은 주(朱)¹⁾자를 쓰다가 춘추전국시대(BC.722-481)부터 주(朱)라 했다고 전하다. 그후 잠(岑)자 할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형 근(瑾)자 어른은 중국 동계(洞溪) 주가의 시조가 되었고, 아우 괴(壞)자 어른은 한국 신안(新安) 주가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그분을 1세로 모신 옛 족보가 남아 있다. 주자(朱子) 회(攄)²⁾자 할아버지는 송학(宋學)을 대성한 철학자, 정치경륜가 그리고 문장가로 만세의 종사(宗師)³⁾이시며 괴(壞)자 할아버지의 9세손이다.

한국의 신안 주가는 주부자⁴⁾의 증손이신 청계공(淸溪公) 잠(潛)자 어른께서 한림원(翰林院) 태학사(太學士)로 1224년 고려 고종(11년)때 문하 7학사와 사위 구존유(具存裕)를 데리고 중국 복건성(福建省)에서 뱃길로 전라도 금성(錦城) 즉, 능주(綾州)에 오시어 자리를 정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공은 사숙(私塾)을 세워 인생의 원리를 밝히는 주자의 성리학(性理學)⁵⁾을 가르쳐 주셨다. 워낙 덕망이 높고, 학문이 깊다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고종은 여러번 예를 갖추어 모시고자 했으나 이를 굳이 사양하시고 다만 고려와 송나라

가 서로 도와가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정책을 임금께 글을 올려 항몽(抗蒙)의 결심을 굳게하도록 했다고 한다.

공의 아드님 여양공(汝陽公)의 호는 민유(敏休), 시호(諡號)⁶⁾는 여경(餘慶)이시며 손자되시는 문절공(文節公) 열(悅)자 어른은 청렴강직(淸廉剛直)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과 문필로써 이바지 한 바 크시고 특히 고려사(高麗史)⁷⁾를 올바른 문장으로 수 놓았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인환(印還) 어른께서는 전주 이씨 안재(安在)와 더불어 일족을 거느리고 강원도 삼척(三陟) 활기촌 일명 민호(民戶)로 1322년에 740호를 거느리고 대이동을 하였고, 다시 1325년에는 안변으로 이주하셨다고 한다. 11세손 인(仁)자 안천군(安川君 1356-1432) 어른께서는 공조전서(工曹典書)란 벼슬에까지 올랐다고 한다.

● 홍주골에 정착하면서

주자 13세손 회언(希彦) 할아버지가 1453년에 처음으로 홍주골에 오셨으며 그 지역은 결성인듯 하다. 그 묘소를 결성관록산(關鹿山)에 모셨다고 하나 지금은 실전(失傳)되어 찾을길이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 다만, 창주사(滄洲祠)의 연혁에 보면 지금부터 135년전 창정부락에 주부자의 영정(影幀)⁸⁾을 모시고 그의 유덕과

주 해(註解)

- | | |
|---|----------------------------|
| 1) 郝: 주나라 주 성주 | 2) 攄: 주자님의 이름자, 빛날 회, 밝을 회 |
| 3) 宗師: 존경하는 높은 스승의 일컬음 | |
| 4) 夫子: 인격이 아주 높아 모든 사람의 거울이 될만한 사람에게 부치는 존칭 | |
| 5) 性理學: 사람의 성품과 하늘의 이치에 관한 원리를 밝힌 유학의 한 계통 | |
| 6) 諡號: 유현들의 공덕을 기리어 죽은 뒤에 임금이 주는 이름 | |
| 7) 高麗史: 고려 34왕, 475년간의 정사 139권 | |

학문을 받들어 제향을 드리는 창주사가 세워졌다. 그리고 유교의 성리학(性理學) 즉 한문과 도덕의 원리를 교육해 온 도광재(道光齋)⁹⁾는 이곳 충절과 문화의 고장다운 꽃을 피우는 뿌리가 되었다고 한다.

▼ 창주사(滄洲祠) 전경



처음에는 흥동면 운월리 창정(滄汀)부락의 본손 집에 영정을 모시고 분향하다가(1804년) 초가로 영당(影堂)을 세워 제사를 모셨다(1856년). 다시 중수하고 창건하여 창주사(滄州祠)¹⁰⁾라는 현판을 걸고 유림(儒林)중에서 사장(祠長)과 장의(掌議)를 뽑고 매년 봄, 가을(2,8월 중정) 제향을 올리고 동시에 유학강론도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한다. 그후 창주사 옆에 재실(齋室)을 세워 처음에는 명덕재(明德齋)라 하고 한문과 예절을 힘써 가르쳤다. 여기 특기할 일은 1929년 충청도 서해안 홍주골 항일의병(抗日義兵)의 영수(領袖)이신 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 선생이 문하생들 그리고 유교부식회(儒敎扶植會)¹¹⁾ 회원들이 처음에는 홍주문묘(洪州文廟) 명윤당(明倫堂)에서 항일의거(抗日義擧)를 모의하다가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더욱 심해지자 비밀리에 창주사로 옮겨

와서 '도광재'란 현판을 걸고 성리학은 물론 애국지사들의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강론과 한학교육의 도장으로 한때 홍주골 항일의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주가 문중에는 장(長), 중(仲), 계(季)파로 나누어지고 자여손들 중에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하였으며 지방 교화의 중추를 이루었다하여 조선조 정조(正祖)께서 주문준중의 윤교(倫敎)¹²⁾를 내리신 바 있으며, 또한 주문(朱門)의 본관이 45에 이르렀으나 고종(高宗)께서는 1902년 공자(孔子) 후손의 예에 따라 주자 후손의 본관을 신안(新安) 한 본(一本)으로 하라는 칙서(勅書)를 내려서 이때부터 주문은 신안(新安)의 본관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신안 주가가 홍주골에 정착한 것은 1453년이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540년에 이르렀고, 지금은 20세손으로 자녀들도 많이 번성(蕃盛)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현실 그리고 과정은 매우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 유교 문화권에 살면서 도의사상은 땅에 떨어졌고, 그렇다고 기독교 문화권은 물론 기독교인의 성격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채 아직 물량적 교회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듯 하다. 문제는 어떠한 종교이던 각이한 종교의 본질과 특색을 살려 우리 민족의 건전한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사회질서를 순화(醇化)할 수 있는 생명력과 실천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하고, 하나의 평생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기독교의 교회는 비교적 각계 각층의 다양한 순번에 따라 연령별로 도덕적 인간교육에 힘쓰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유교와 불교는 이러한 점에서 볼때 향교 또는 재실 등을 상시로 개방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

주 해(註解)

- 8) 영정(影幀): 화상 또는 영상을 그린 족자 9) 도광재(道光齋): 창주사를 모시는 유생들이 공부하는 글방
 10) 창주사(滄洲祠): 주부자 한 분의 영정만을 모신 사당집, 흥동면 운월리 창정부락에 있음
 11) 유교부식회(儒敎扶植會): 1927년 오석우, 전용옥, 최중식씨등이 조직하고 인도(人道)지를 발간하며 도의심을 높여 윤리관을 확립하는데 힘썼다.
 12) 윤교(倫敎): 임금님이 내리신 말씀
 13) 주문탁(朱永鐸): 1925년 출생 현존, 창주사(滄洲祠)를 받들어 제향을 모시는 일과 도광재(道光齋)에서 한문과 유학을 배우고 익힌 수재자로서 10년간의 훈장 등 전형적 선비로서의 인품을 갖춘 유학자이다.

고도 지속적인 방안의 인간교육 즉 건전한 도덕교육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 또는 참고자료로서 주영탁(朱永鐸)¹³⁾씨의 도광재 수학기(修學記)를 소개하고자 한다.

▼ 도광재(道光齋) 전경



● 도광재 수학기(修學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뛰어난 재질을 가져서가 아니라 다행히 창주사를 모시는 도광재 마을에 자라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한문과 유학을 배우게 되었으니 이는 역시 조상님들의 음덕이 아닐수 없다. 어려서부터 장성하기까지 도광재 글방에서 인륜과 도덕을 비롯하여 사람 됨됨이의 글과 행실을 배우고 익혀 왔다.

특히 창주사 춘추 제향때에는 인근에서 고명한 유학자들이 오셔서 경건하게 제사를 모시고 깊은 학문을 규명 강론하시면서 아울러 후진들을 깨우쳐 주심은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었다.

1900년경초부터 경당(敬堂) 주기완(朱基完) 선생님은 참으로 훌륭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스승님이었다. 어린이들 교육

으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엄숙하면서도 질서있고 충실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초급에서는 천자문(千字文)과 동몽선습(童蒙先習), 효경대의(孝經大義), 격몽요결(擊蒙要訣), 명심보감(明心寶鑑), 소학(小學)등을 배웠다.

다음 중급에서는 사서(四書) 즉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을 배웠고, 마지막 상급에서는 삼경(三經) 즉 시전(詩傳), 서전(書傳), 주역(周易)을 배우고 익혔다. 학습하는 방법은 당일 배운 것은 반드시 저녁때에 외워야 했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창주사 경내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참배 분향한 후에는 다시 재실의 대청소를 마친후에야 공부 시작되었다. 즉 14일간 배운 것을 돌아앉아 암송을 할때까지 힘써 반복되었다.

책읽기는 하루 4번 이상하고 한번에 20~30줄씩 배운다. 붓글씨는 하루 2번이상 쓰되 한줄은 4번이상 연습하며 글자가 크거나 작거나 한 자 한 획도 흐트러져서는 안된다. 아침마다 먼저 선생님께 예를 올리되 접장(接長)의 구령에 맞춰 하고 손을 모아 바로서고 머리를 숙여 가르침을 듣고 이어 오륜(五倫)¹⁴⁾을 함께 큰소리로 외운다. 그리고 학생들이 절을 올리면 선생님도 읊(揖)을 하고, 각자 배움을 시작한다.

초급은 천자문(千字文)부터 시작하여 동몽선습 등은 접장이나 먼저 배운 학생이 가르치게 하고 사서(四書)나 삼경(三經)은 선생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다. 다시 저녁때가 되어 수업을 마치게 되면 선생님은 당상에 의관을 바로하고 일어서신 다음 접장의 인솔과 구령에 따라 섬돌 아래 내려서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사흘잠(四笏箴)¹⁵⁾을 낭독한다. 암송이 끝나

주 해(註解)

- 14) 오륜(五倫): 다섯 가지의 인륜 도리로 부자의 친애, 군신의 의리, 부부의 분별, 장유의 차서, 봉우의 신의를 말한다.
 15) 사흘잠(四笏箴): 네가지를 경계하라는 잠언으로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도, 행동도 하지말라는 경계하는 가르침.
 16) 줄글: 시전 서전과 같은 장문의 산문체 글
 17) 모듬글: 명인들의 시작 단편집, 소동파의 적벽부등
 18)古文眞書: 한문 고전중 추려 적은 책이름
 19)~22): 글방에서 많이 부른 노래로 도광재, 만흥(漫興)의 금음에 있음
 23) 貫珠: 글이나 글자가 잘되었을때 글자옆에 치는 동그라미의 표시로 우수작 표시
 24) 批点: 시문의 잘된 곳에 찍는 점, 가작표시

면 고요히 절하고 선생님의 답례가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삼동(三冬) 겨울에는 줄글¹⁶⁾을 읽히고 봄 3월이 되면 모듬글¹⁷⁾을 읽히는데 고문진서(古文眞書)¹⁸⁾를 교재(教材)로 썼으며, 학력의 수준에 따라 3~4등급으로 분반 편성했다. 혹은 글을 짓기도 하고 노래를 읊으며 춤을 추기도 한다. 즉 권학가(勸學歌)¹⁹⁾, 오륜가(五倫歌)²⁰⁾, 수신가(修身歌)²¹⁾, 정신가(精神歌)²²⁾ 등이 있다.

그리고 음(陰) 4월 20일경이 되면 광천시장의 생선 한갑장을 기하여 여러가지 생선을 사되 가정형편에 따라 돈을 수렴하고 쌀을 수합하여 술과 안주 그리고 음식을 장만하여 봄놀이를 하는데 학부형은 물론 이웃어른들 그리고 시객(詩客)과 내빈들을 초청하여 교류하고 시를 지어 내면 장원(壯元)과 가작(佳作)을 사정(査定)하고 흥미있게 소리 높여 읊기도 했다.

따라서 관주(貫珠)²³⁾나 비점(批點)²⁴⁾을 끊어 평론한 다음 장원시(壯元詩)가 되면 그 학부모는 장원례(壯元禮)라하여 다시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온종일 먹고 마신다. 다음날 학생들은 정도에 맞추어 오언당음반(五言唐音班)과 칠언당음반(七言唐音班)으로 나뉘어 염락(廉洛)²⁵⁾과 두율(杜律)²⁶⁾을 읽히고 매일 운자(韻字)를 받아 시를 지어서 선생님이 고쳐 주심에 따라 거듭 시작(詩作)을 연습하고 지도를 받는다. 음 7월 20일경이 되면 파접(罷接)²⁷⁾놀이를 하는데 역시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학부형들로부터 봄놀이와 같이 인근어른들을 모시고 음식을 차려 먹고 마시며 운자를 받아 시를 지으며 온종일 취흥(醉興)으로 하루를 즐긴다. 그러나 행사만 끝나면 다음날은 여전히 책을 읽고 학문에 힘쓴다. 다만, 추석 명절에는 4~5일간 쉬고 20일경에 정상수업을 한다.

또한 삼동(三冬) 농한기에는 문호를 개방하고 야학을 열어 동리 남녀를 막론하고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국문과 한문 그리고 예의범절(禮儀凡節)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배우는 1년간의 강미(講米)²⁸⁾는 일반적으로 가을에는 벼 1가마, 보리때는 보리 1가마씩 받고 흥학계원(興學契員)²⁹⁾의 자제들은 그 반액으로 납입하다가 해방직후에는 반대로 흥학계원의 자제들은 벼 1섬(실 200근)을 내고 비계원은 보리때 보리 10두 가을에 벼 10두씩 냈다고 한다.

참고로 학생들의 분담된 소임을 보면 청소의 책임을 지는 사소(司掃)와 제반물을 날라 대어주는 사수(司水), 그리고 서예(書藝)의 관리를 맡아 보관하는 사서(司書)와 독서의 지도와 감시를 하는 사독(司讀) 그리고 전반적 지도와 감시를 책임지는 총찰(總察)등이 학습의 질서와 분위기를 바로 조성했다고 한다. 즉 창정동 글방은 1887년부터 1961년까지 75년간 계속 되었고, 훈장으로 수고하신 선비 어른들만도 12인에 이르렀으며 필자도 주기완(朱基完)³⁰⁾선생님과 주영탁(朱永鐸)훈장을 잇을 수가 없다.



▲ 창주사(滄洲祠)와 도광재(道光齋)

주 해(註解)

25) 廉洛: 廉溪에 있던 周敦頤 洛陽의 程顥학과를 뜻함

26) 杜律: 唐의 詩人 杜甫(712-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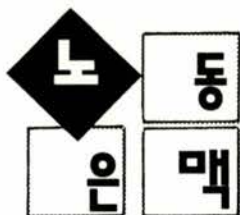
27) 罷接: 글짓고 책읽는 모임을 마침

28) 講米: 글방선생에게 보수로 드리는 쌀

29) 興學契: 자녀교육을 위한 오늘의 장학회로 현재까지 흥학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금년에도 정규대학 입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다.

30) 朱基完: 1880년경에 나시고 어려서부터 한학을 전수받고 1905~1925년까지 20여년간 도광재에서 훈장을 하시며 滄洲祠를 만들었다. 학문의 조예가 깊으시고, 덕망이 높아 우리 문중의 대표적 학자로 많은 제자를 배출한다.



崔瑩將軍, 成三問先生 生家마을

田 玉 鎮

순 서

4. 魯恩洞名 異稱

5. 不事二君의 忠節을 지켜 魯恩洞에 隱居한 都膺

6. 魯恩洞 精氣속에 誕生한 成三問先生

- 山神이 “낳았느냐” 소리 세번 듣고, 誕生한 成三問先生
- 梅竹軒의 科擧와 官職生活
- 成三問의 重要行狀
- 梅竹軒의 詩
- 王統保傳의 忠節
- 忠節意志의 失敗
- 悲運을 겪는 成三問과 家族
- 遺蹟
 - (1) 生家址
 - (2) 魯恩壇
 - (3) 成三問先生 遺墟碑
 - (4) 魯恩書院碑
 - (5) 死六臣公園
 - (6) 一枝塚
 - (7) 仁厚院의 遺蹟
 - 成勝墓
 - 貞夫人 延安金氏墓
 - (8) 生家址 聖域化事業
 - (9) 맺는말

4. 魯恩洞名 異稱

魯恩洞名은 根 많은 歷史와 더불어 赤洞, 老隱, 金谷, 金洞, 火洞, 緣雲, 魯雲, 魯恩이라 개칭되어 왔다.

• 赤洞: 海東名將 崔瑩將軍이 태어나신 때는 赤洞이라 하였으며

… 洪州邑誌 …略…崔瑩生於赤洞…略…

• 老隱: 1392年 7月 高麗가 滅亡하고 朝鮮太祖 李成桂가 王으로 추대되어 開京 壽昌宮에서 卽位하니 高麗忠臣烈士들은 “忠臣은 不事二君”이란 忠正으로 杜門洞에 들어가 隱居하면서 不出하니 後世 사람들은 杜門洞 72賢이라 한다.

이때 高麗朝에서 贊成事 벼슬을 지낸 都膺(星州都氏 7世孫)은 家族들을 데리고 魯恩洞에 와서 杜門不出하고, 一生을 마치니 이때는 “늙은 사람이 숨어 살았다.” 하여 老隱이라 했고,

…… 星州都氏青松堂都先生實紀中 ……

• 金谷: 成三問先生이 태어 나실 때는 金谷이라 했다.

… 洪州邑誌 …略…世稱金谷之文指成三問赤洞之武卽指瑩也…略…

• 金洞·火洞: 金洞, 火洞도 역시 古代에 現魯恩洞의 地名이다.

… 洪州邑誌 …略…古所謂金谷卽今之金洞今之火洞卽古所謂赤洞也…略…

• 緣雲: 1676年(肅宗2年 丙辰) 李亮을 中心으로 儒林들이 成三問先生 生家址아래에 祠宇를 建立하고, 成三問先生의 神主가 漢陽仁旺山에서 發見되므로 神輿로 魯恩洞生家로 遷奉하여 모셨고 1685年(肅宗11年 乙丑) 死六臣中 五先生(朴彭

年, 河緯之, 李塏, 俞應孚, 柳誠源)의 位牌를 다시 모셨으며 1702年(肅宗28年 壬午)에 儒生들이 訴請하여 緣雲書院이란 賜額을 下賜받았다. 1700年(肅宗32年 丙戌)에 成勝(成三問의 父)을 別祠에 追加奉享했다.

…成先生 遺墟碑陰記中에서…

• 魯雲: 이 書院을 1712年(肅宗38年 壬辰)에 魯雲書院으로 改稱했다.

…… 典故大方 ……

• 魯恩: 1769年(英祖45年 己丑)에 儒林들이 訴請하여 魯恩書院이라 賜額되었다. 이유는 文貞子判書公鎮厚(閔鎮厚: 인현왕후의 오빠)가 尤庵宋時烈先生에게 書院을 魯恩이라 해야 그 義가 있으니 반드시 魯恩이라 하라는 指示를 받고 儒林들이 協議訴請하므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成三問先生遺墟碑 碑陰記…略…文貞



萬古忠臣梅竹軒成三問先生影幀

子判書公鎮厚以爲尤庵稱此洞必曰魯恩魯恩其有義己丑白于上遂命改頒今額…略…

5. 不事二君의 忠節을 지켜 魯恩洞에 隱居한 都膺

禮山을 떠나 國道로 洪城을 향하여 달리다보면 禮山郡과 洪城郡界를 通過하게 된다. 이곳이 예전에는 洪州牧統治區域仁厚院(現 禮山郡 應峰面 支石里)이다. 洪城郡 金馬面과 禮山郡 大興面의 境界로 하는 鳳首山(一名 大興山 = 百濟任存城址) 脈과 속칭 '닭재봉'이라 하는 계봉(鷄峰)이 洪北面 魯恩里에서 起峰하여 金馬面과 禮山郡 應峰面을 境界로하는 國道邊에 서로 만나 脈을 形成한 산들이다.

차편으로 지나더라도 도로 깊숙이 都氏門中 祠堂이 (俗稱: 鬼神나오는 凶家라고도 함) 있고, 도로변에 「重大匡門下侍中贊成事青松堂都先生神道碑」와 「星州都氏之阡」이란 碑가 우람하게 서 있고, 嶺山 봉우리에 墓碑, 床碑, 將軍石 등이 많이 서있는 山所가 있다. 이 墓의 주인공이 高麗朝의 忠臣 星州都膺先生이다. 都膺은 星州都氏 7世孫으로 高麗末 贊成事를 지낸 학자이기도 하다.

李成桂가 高麗의 名將으로 崔瑩將軍의 北伐計劃을 無視하고 威化島에서 回軍하여 새로운 王朝를 세우니 高麗 忠臣들은 開城의 杜門洞에 隱居不出하면서 忠臣은 不事二君이라는 忠節을 지켰고, 都膺은 洪城郡 洪北面 魯隱里에 家族과 함께 내려와 隱居하며 一生을 마쳤고, 그의 여러 名賢들도 魯恩洞에 와서 隱居하면서 지냈다한다. 傳하는 詩 한 수를 記錄하면

해뜨면 들에 나가 일하고
해지면 집에 들어와 쉰다.
“日出而作 日入而息”
우물 파 마시고
밭갈아 배 채우니

“鑿井而飲 耕田而食”

나 살아가는데 임금의 힘 필요없도다.

“帝力何有於我哉”

都膺이 魯恩洞에서 隱居하고 있을때 李成桂는 5년에 걸쳐 다섯차례나 벼슬자리와 祿을 下賜하여 臣下되기를 간청하였으나, 麗朝節義를 지켜 사양하고 일생을 魯恩洞에서 마쳤다하니 참으로 장한 일이라 稱讚한 李成桂는 青松堂이란 號와 金字로 쓴 御製約句寵詩를 下賜했을뿐아니라 無學大師로 하여금 墓所까지 잡도록 배려했다고 전한다.

· 參考 = 青松堂都先生實紀

6. 魯恩 精氣속에 誕生한 成三問先生
成三問先生은 昌寧人이며 9世孫이다. 字는 謹甫, 訥翁이고 號는 梅竹軒이다.

父는 都總管, 勝, 祖父는 中樞院事, 達生 曹 祖父는 資憲大夫寶文閣大提學 石瑢이다. 直系先祖들이 名門이며 忠臣들의 가정이다.

· 山神의 “낳았느냐”소리를 세번 듣고 誕生한 成三問

1418年(太宗18年 戊戌) 洪州(洪城)의 赤洞(魯恩里)의 竹山朴氏, 懸監을 지낸 朴瞻先生의 따님(성삼문선생의 어머니)이 產氣가 있어 집안 사람들이 안방에 불을 따듯이 피우고 順産만 기다리고, 朴 舍廊 채에는 朴瞻과 행낭채에 童(僕)들이 비상 대기 하고 있었다. 괴이하게도 하늘에서 “낳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렸다.

朴瞻과 여러 童들이 밖으로 뛰어 나와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일이 없으며 사람들의 기척도 보이지 않아 괴이하게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다시

“낳았느냐?”

소리가 들렸다.

그제서야 산신령이 물어보고 있는것을



成三問先生 生家와 崔瑩將軍 聖域址

알고 박첨(성삼문선생의 외조부)은 童(家奴)를 시켜 냉수를 정성껏 떠 오도록 하여 뒷산 봉우리에 올려 놓고 再拜한 뒤에

“아직 낳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했다. 몇시간이 지나도 출산하지 않자 또다시 하늘에서

“낳았느냐?”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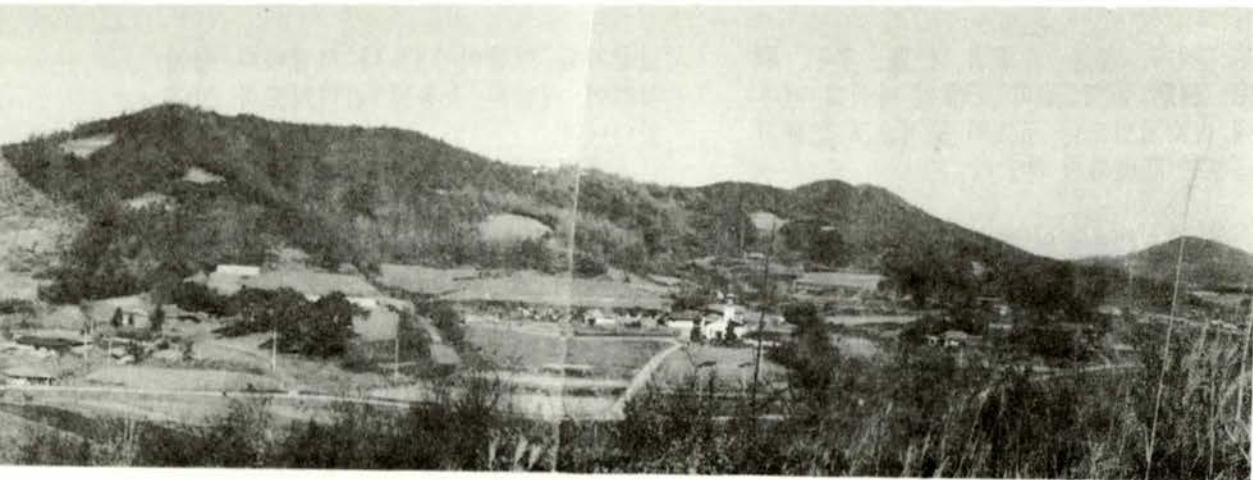
때를 맞추어 안방에서 세상을 처음보는 울음소리가 문밖으로 터져 나온다. 집안 사람들은 산모의 안후를 물을 거를도 없이 아들이나 딸이냐에 신경이 쏠리고 있었다. 産室보조를 하던 童이 뛰어 나와 사랑방에서 기다리던 박첨에게 고한다.

“외손자 보신것을 기뻐해 주소서.”

이 말을 들은 박첨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소리를 몇번이고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날이 밝자, 박첨은 童들을 시켜 금줄을 달게하고, 황토흙을 대문앞에 양쪽으로 3무덤씩 퍼놓고 그 앞에 오동(梧桐)나무 2개를 출산기념으로 심었다. 이 오동나무는 그후로 성삼문선생이 과거급제를 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을때 북을 매어 놓고 치며 잔치를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하늘에서 세번 물어 보았다하여 三問



成三問先生 生家와 崔瑩將軍 聖域址

(成三問의 이름)이라 이름지었다고 전해진다.

…遺墟碑(宋時烈撰)…略…皇明永樂戊戌生于洪州魯恩洞外家將降自空中有問曰生乎如是者三故以爲名…略…

그 오동나무에 얽힌 傳說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成三問先生이 科擧及第하여 사면육각을 갖추고 고향에 돌아올때 오동나무에 북을 매달아 놓고 컸으며, 잔치를 몇일 할때 흥을 돋군 선비마다 오동나무에 매달린 북을 치며 기뻐했다고 한다.

遺墟碑名(宋時烈撰)…略…邑人尙其第宅至今梁棟無恙庭有老梧世傳先生登第榮歸設宴時縣樂於樛枝云爾…略…

한일합방과 더불어 家具材로 오동나무가 많이 필요했다. 상인들인 상삼문선생 집앞의 오동나무를 사고 싶으나, 전하는 말에 그 나무에 손대면 화를 당한다 하여 살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昌寧成氏 한분이 그 나무를 팔겠다고 하자 연락을 받고온 오동나무장사가 돈을 들푹 줄테니 베어주는 것까지 해달라고 청했다. 成氏는 베어줄테니 걱정 말라고 하며 톱으로 오동나무를 베기 시작하였다. 그 나무를 베던 成氏는 갑자기 쓰러져 혼수상태가 되어 집으로 옮겨 치료하였으나, 百藥이 無效라 몇일만에 죽었다한다.

그런 연유로 늙은 오동나무도 죽어버리고 다시 싹이 나와 컸으나 세월이 흐르면

서 다시 죽자 그 집에 현재 살고 있는 黃弼性면장이 그자리에 오동나무를 심어 현재 자라고 있다.

· 提報者: 成樂濬 銀河面長

● 梅竹軒의 科擧와 官職生活

漢文學을 閑碩堂 朴仲林의 門下에서 1435年(世宗17年 乙卯)까지 受學하면서 生員試에 合格하고 1438年(世宗20年 戊午) 文科試에 丁科로 及第하여 成均主簿로 集賢殿修撰으로 있으면서 1447年(世宗29年 丁卯) 文科重試에 對策으로 壯元하여 集賢殿直提學에 任命되었다.

文宗(1451~1452)때에는 經筵檢計官을 兼任했고, 端宗(1453~1454)때에는 左司諫, 右司諫, 副提學, 禮曹參議 經筵侍讀官, 同副承旨를 歷任하여 世宗實錄 編修官에 任命되기도 하였다. 1455年(世祖元年 乙亥) 閏六月에 右副承旨에 任命하고, 11月 左副承旨에 임명되었으며 1456年(世祖2年 丙子)에 端宗復位를 主謀했다가 謀議事實이 發覺되어 斬刑 당하니 때는 陰 六月 9日로 享年 39세였다.

1691年(肅宗17年 辛未)에 復爵하여 吏曹判書 兼兩館大提學에 追贈되었고, 諡號로 忠文이라 하였다. 이는 斬刑 당한지 235년만의 復爵이며 先生을 斬刑한 世祖도 重患으로 睿宗에게 傳位되었고 睿宗도 1년만에 昇遐한뒤 成宗, 燕山君, 中宗, 仁

宗, 明宗, 宣祖, 光海君, 仁祖, 孝宗, 顯宗, 肅宗 등 12회의 王權이 바뀌고 난후에 復爵되었으나 三族의 斬刑으로 絶孫된 傷處는 回復되지 않았다.

● 成三問先生の 重要行狀

世宗때에는 처음으로 集賢殿을 設置하고 全國에서 文士 20名을 選拔하였는데 成三問先生은 朴彭年, 柳誠源, 李埏, 河緯池와 함께 뽑혔다. 세종대왕은 이들을 內官으로 待遇하여 朝夕으로 極盡히 禮遇하였다. 그중에서도 年少한 文士를 또다시 뽑아 절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였는데 成三問先生도 발탁되어 三角山 津寬寺에 들어가 공부했다. 세종대왕은 病患으로 여러차례 溫泉을 다녔는데 成三問先生은 御駕 옆에 平服을 입고 朴彭年, 李埏, 申叔舟, 崔恒 등과 함께 顧問役割을 맡았다.

諺文廳을 設置하고 子母 二十八字를 제작하였는데 天地人의 三才를 中心으로 五音으로 나누어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으로 구별했고, 脣音에는 輕脣音, 重脣音의 차이가 있고, 舌音에는 正舌音, 反舌音이 있으며 글자에도 全清, 次清, 全濁, 不清, 不濁의 차이가 있는 점을 연구하여 이 根本原理를 적용 한글 創製에 貢獻했다. 때마침 明나라 音律의 大家인 翰林 黃瓚이 죄를 짓고 遼東에 귀양사리하고 있었으므로 成三問先生은 申叔舟와 함께 요동에 가서 黃瓚을 만나 音韻을 質問 研究하려고 13번이나 다녀 왔다고 전한다. 「參考」… 訓民正音

■ 訓民正音(훈민정음)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하야 與文字로 不相流通할새 故로 愚民이 有所欲言하여도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라. 予 爲此憫然하야 新制二十八字하노니 欲使人人으로 易習하야 便於日用耳니라.

(解)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것을 매우 딱하게 여기어 새로 스물여

덟글자를 만들어 내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히어 나날의 소용에 편리하도록 함에 있나니라.

• 訓民正音… 오늘의 「한글」을 일컬음이니 세종대왕께서 지으신 우리나라글자모음 11자와 자음 17자로 되어 있다. 세종25년에 완성하고 동년인 27년에 반포하였다.

• 國之語音… 우리나라 말이란 뜻인바 당시로서는 사대모화(事大慕華)의 정신과 전통적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말을 은어(隱語)니 방언(方言)이니 이어(俚語) 혹은 속어(俗語)니 낮추었던 것이다. 이때에 이와같은 말씀은 의당히 올바른 국어의식(意識)이라는 해석으로만 마칠것이 아니다.

• 文字… 한자(漢字)를 가르키는 말이다. 혹 줄여서 「자」라고 하기도 한다.

• 愚民… 어리석은 백성 즉 글모르는 백성들을 이른 말이다.

• 易習… 쉽게 익히다. 혹은 쉽게 배운다는 뜻.

※ 여기 이습(易習)의 쉽게 배운다는 말에 또한 의미가 있다. 이 「이습」이란 이(易)자는 흔히 「도마뱀」의 상형문자(象形文字)로서 「도마뱀」이 제보호색(保護色)을 쉽게 자주 바꾸는 것과 같이 자연현상이나 사람의 일도 변화무상하다는 뜻에서 근거된 글자이다.

이를테면 우리 겨레도 언제까지나 퇴영과 빈곤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 국문에 의한 문맹(文盲)퇴치로서 도마뱀이 보호색을 쉽게 바꾸어 침해의 방어와 공격의 무기로 삼음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뜻에서 쓰인 역(易)자인 것이다. 따라서 다른 겨레의 곤욕을 이미 실감(實感)하신바 있는 세종(世宗)이신지라 앞날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방면의 대책을 세움에 있어 제일 앞서는 조건이 백성들의 지식보급에 있음을 명찰하사 가장 그 선발적인 것이 바로 이 훈민정음의 반포였음을 가히 깨달을 수 있다.

• ㄱ은 牙音이니 如君字初發聲이요, 竝

書하면 如蚪字初發聲하니라.

ㄱ은 엄소리니 군(君)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며 어우러 쓰면 蚪(규:꿩)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ㅋ은 牙音이니 如快字初發聲하니라.

ㅋ은 엄소리니 쾌(快:뎡)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ㆁ은 牙音이니 如業字初發聲하니라.

ㆁ은 엄소리니 업(業:업)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ㄷ은 舌音이니 如斗字初發聲이요, 並書하면 如覃字初發聲하니라.

ㄷ은 혀소리니 두(斗:뚝)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며 어우러 쓰면 覃(覃:땀)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ㅌ은 舌音이니 如吞字初發聲하니라.

ㅌ은 혀소리니 탄(吞:툇)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ㄴ은 舌音이니 如那字初發聲하니라.

ㄴ은 혀소리니 나(那:낭)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ㅍ은 脣音이니 如驚字初發聲이요, 並書하면 如步字初發聲하니라.

ㅍ은 입술소리니 별(驚:뵘)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며 어우러 쓰면 步(步:뵘)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ㅍ은 脣音이니 如漂字初發聲하니라.

ㅍ은 입술소리니 표(漂:뵘)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ㅁ은 脣音이니 如彌字初發聲하니라.

ㅁ은 입술소리니 미(彌)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ㅅ는 齒音이니 如卽字初發聲이요, 並書하면 如慈字初發聲하니라.

ㅅ는 잇소리니 즉(卽)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며 어우러 쓰면 慈(慈)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ㅅ는 齒音이니 如侵字初發聲하니라.

ㅅ는 잇소리니 침(侵)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ㅅ는 齒音이니 如戊字初發聲이요, 並

書하면 如邪字初發聲하니라.

ㅅ는 잇소리니 술(戊)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며 어우러 쓰면 사(邪)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ㅎ은 喉音이니 如挹字初發聲하니라.

ㅎ은 목소리니 읍(挹)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ㅎ은 喉音이니 如虛字初發聲이요, 並書하면 如洪字初發聲하니라.

ㅎ은 목소리니 허(虛)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며 어우러 쓰면 홍(洪)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ㅇ은 喉音이니 如欲字初發聲하니라.

ㅇ은 목소리니 욕(欲)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ㄹ은 半舌音이니 如間字初發聲하니라

ㄹ은 반혀소리니 려(間)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ㄹ은 半齒音이니 如穰字初發聲하니라

ㄹ은 반잇소리니 양(穰)자의 처음 펴어나는 소리와 같으니라.

• ●는 如吞字中聲하니라.

●는 탄(吞)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 ㅡ는 如卽字中聲하니라.

ㅡ는 즉(卽)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 |는 如侵字中聲하니라.

|는 침(侵)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 ㄴ은 如洪字中聲하니라.

ㄴ은 홍(洪)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 ㅍ는 如覃字中聲하니라.

ㅍ는 覃(覃)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 ㄱ은 如君字中聲하니라.

ㄱ은 군(君)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 ㄷ은 如業字中聲하니라.

ㄷ은 업(業)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 ㄹ은 如欲字中聲하니라.

ㄹ은 욕(欲)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 ㄹ은 如穰字中聲하니라.

ㄹ은 양(穰)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 ㅅ는 如戊字中聲하니라.

ㅅ는 술(戊)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 ㅅ는 如驚字中聲하니라.

ㅅ는 별(驚)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으니라

○牙音… 어금니소리, 각음(角音)이라고도 하고 현대말로는 연구개음(軟口蓋音)을 말함.

○舌音… 혀소리, 치음(徵音), 치조음(齒槽音).

○脣音… 입술소리, 궁음(宮音), 양순음(兩脣音).

○齒音… 잇소리, 상음(商音), 구개음(口蓋音)과 치조음(齒槽音).

○喉音… 목구멍소리, 우음(羽音), 성문음(聲門音).

○半舌音… 반혀소리, 유음(流音).

○半齒音… 반잇소리, 치조마찰음(齒槽摩擦音)

○初發聲… 처음 퍼어 나는 소리, 한음절(音節)에서 제일먼저 발음되는 소리란 뜻함. 초성(初聲)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한다.

○竝書… 어우러 쓰는 것으로 자음(子音)글자 두자 이상을 좌우로 나란히 쓰는 것을 말한다.

○中聲… 모음(母音)을 중성이라고 하나 여기 원문의 중성(中聲)은 한음절(音節)의 중간에서 발음되는 소리란 뜻이다.

오늘날 세간에서나 학교당국의 수업상에나 훈민정음 언해본은 물론이요, 앞의 자모 소리값 해설문을 읽을때에 그 첫머리 ㄱ, ㄴ, ㄷ 등 낱자(子母)에 대하여 「기역, 니은, 디귚」따위로 현행 한글 낱자 이름을 붙여서 읽는것이 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가령 ㄱ은 오늘날과같이 「기역」이란 명칭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그 문장의 근본정신을 살려야 되므로 초·중성을 불문하고, 마땅히 눈으로 자모글자의 모양만을 살피며 전부를 이(是) 눈이라고 읽되 다만 「ㄱ, ㄴ」따위 어두운 홀소리 글자만은 「그」는 이라고 읽고, 다음부터는 자모 운용법이며 해례(解例)가운데의 낱자는 여기에서 잡혀진 소리값(가령 초성의 경우 「ㄱ-그, ㄴ-느, ㄷ-드」따위로 발음되는바 단 홀소리 「ㄱ」가 따르지 않게 낱자 자체의 단음만을 소리내야 됨)으로 써 각각 그 낱자의 이름 삼아 읽는것이 원

칙인 것이다.

※ 사실상 받침소리가 없는 한자(漢字) 快, 那, 彌, 虛 등의 음을 “쾌, 낭, 밍, 형” 따위 삼성을 갖추어 쓴 것을 볼수가 있다. 그 연유인지라 한자란 초·중·중성의 삼성을 갖추지 않으면 음을 이룰수 없는 까닭에 이 규정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받침에 불과한 것이다.

終聲에 復用初聲이요, ○을 連書脣音之下하면 則爲脣輕音이니라 初聲合用則並書요, 終聲도 同이니라. * ., ㅅ, ㅈ, ㅊ, ㅋ, ㆁ는 附書初聲之下하고, |, ㅌ, ㄷ, ㅌ, ㄷ, ㄷ는 附書於右하나니 凡字必合而成音이니라. 左加一點則去聲이요, 無則上聲이요, 入聲은 加點同而促急이니라.

중성(받침)에는 다시 초성을 쓰며 ○을 입술소리 아래에 연해쓰면 곧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초성을 합쳐 쓰는 데는 어우러 쓸것이요, 중성도 한가지다.

* ., ㅅ, ㅈ, ㅊ, ㅋ, ㆁ는 초성 아래에다 붙여 쓰고 |, ㅌ, ㄷ, ㅌ, ㄷ, ㄷ는 오른쪽에 붙여 쓰나니 모든 글자는 반드시 합해서 음을 이룬다 왼쪽에 한점을 더하면 거성이요, 두점이면 상성이요, 없으면 평성이요, 입성은 점을 더하는 것은 같으되 빠르다.

○脣輕音… 입술 가벼운 소리(ㅁ, ㅂ, ㅍ) 즉 입술을 덜다물고 잠깐 가볍게 내는 소리.

○上聲… 처음은 낮고 나중에 차차로 높은 소리

○去聲… 가장 높은 소리

○平聲… 높지않은 소리로서 그 가운데 상평성, 하평성이 있다.

○入聲… 짧고 빠른소리(이 가운데도 상성, 거성, 평성이 있음)

○促急… 빠르다는 말

※ 자모(字母)운용에 있어 여섯가지 법칙을 해설한 것인바 첫째의 받침에 모든 초성을 가져다 다시 쓴다고 규정한 것을 중성법(終聲法)이라 하고 둘째의 입술소리(脣音) ㅁ, ㅂ, ㅍ 아래에 ○을 연이어 써놓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脣輕音)가 된다는 규정을 연서법(連書法)이라 하며,

세째의 초성을 두자이상 합해 쓰려면 나란히 이어 쓰고 초성이 종성(받침)으로 쓰였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정은 병서법(竝書法)이요, 네째는 옆으로 퍼진 중성글자(ㄱ, ㄴ, ㄷ 등)는 초성의 아래에 붙여 쓰고 세로로 긴 중성글자(ㅣ, ㅅ, ㅈ 등)는 초성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는 규정은 부서법(附書法)이요, 다섯째의 모든 글자는 반드시 합해서 음을 이룬다는 규정은 성음법(成音法)이요, 여섯째의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사성(四聲)에 대하여 “첨”으로써 분간하는 규정은 가점법(加點法)이라한다. 혹, 방점(榜點), 좌점(左點), 사성점(四聲點)이라고도 한다.

文宗(珣)이 오랫동안 東宮에 있으면서 學問에 沈潛했다. 가끔 달이 밝은 밤이면 조용히 걸어 集賢殿에 나와 學問을 論難 또는 質問하는등 隨時 往來하였으므로 集賢殿의 守直하는 職員들은 밤이 되어도 冠帶를 벗지 못하였다 전한다.

하루는 謹甫(成三問先生의 字)가 깊은 밤이 되었으므로 文宗이 나오지 않을것으로 생각하고 冠帶를 벗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문밖에서 갑자기 신발소리가 들리더니

“謹甫! 謹甫! 잠자나, 벌써 잠들었나?”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나가보니 文宗이었다. 다시 學問을 論議하고서 나온것이다. 文宗은 世宗大王의 聖志를 받들어 學問에 대한 熱意와 集賢殿學者에 대한 사랑이 至極했다. 世宗大王은 文宗(珣)의 病患이 危篤해지자 世孫(弘曄=端宗)을 데리고 集賢殿에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촛불앞에서 論難하다 밤이 깊었다. 文宗의 病患을 크게 걱정되는 表情으로 어린 世孫(端宗)의 머리와 등을 쓰다 드면서

“이 아이를 卿들에게 付託하오”

라고 하면서 酒宴을 베풀었다. 御榻에서 내려와 신하들과 平坐한 다음 잔을 둘러가면서 술을 많이 권했다. 그중에서도 많이 권한 學者가 成三問, 朴彭年, 申叔舟였으므로 모두 그 자리에 醉해서 쓰러졌

다. 世宗은 中官에 命하여 수레에 차례로 세분을 실어 入直廳으로 옮겨 나란히 눕혔다. 그러나 이날밤이 유심히 추었고, 大雪까지 내려 酷寒이었다. 새벽에 술이 깨어서 보니 방안에 이상한 香臭가 가득하고 온몸에는 貂皮이불이 덮혀져 있었다. 이것은 世宗大王이 직접 덮어 주고 갔다 한다.

秋江 南孝溫先生은 六臣傳을 지었다. 그 내용중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世祖가 金宗瑞(1390:恭讓王 2-1453:端宗)를…1450年 左贊成으로 平安道體察使를 兼職했다가 1451年 右議政에 昇進하였다. 1452年 世宗實錄, 高麗史節要等 編纂을 監修하여 刊行했다. 文宗의 遺訓으로 端宗을 協助한 宰相가운데 大虎란 별명까지 붙었던 智勇을 겸비한 名臣으로 王位를 노리던 首陽大君(世祖)에 의하여 1453년 두 아들과 함께 擊殺 당하여 大逆謀叛罪로 梟示됨으로서 癸酉靖難의 제1차 희생자가 된 忠臣이다. …

죽이고 集賢殿의 여러 신하들에게 모두 靖難功臣이란 稱號를 주었는데 成三問先生은 부끄럽게 생각했다. 다른 신하들은 차례로 功臣된 것을 自祝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成三問先生만은 잔치를 벌이지 않았다.

1455年 乙亥에 世祖는 端宗을 몰아내고 王位에 오르니 成三問先生은 禮房을 맡은 承旨로써 國璽를 안고 痛哭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역대장감박의(歷代將鑑博議)」考

배 동 순

…… 일본에 유전된 한국 갑인자판 「역대장감박의」 내사본, 인본문을 번역했음. ……

목판본 일람표를 보면 충남에서는 공주가 5종, 홍주가 7종, 임천이 2종, 한산이 2종으로 되어 있다. 홍주 7종의 5번째에 「장감박의(역대장감박의) 대계(戴溪)선자부병가류」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장감박의(역대장감박의)편을 다루기로 하되 심우준(沈遇俊)씨가 엮은 내사본에서 인용요약하기로 한다.

1) 고사찰요에서 본 歷代將鑑博議 (缺本一冊)

宋載溪撰 卷十 缺而前后數葉落 木版 四周 雙邊有界 十一行 十七字 匡郭長 一九·〇厘乃至 二〇·二厘 廣一三·〇厘 黑口按許封續撰本 攷事撮要 洪州 水原 海州 原州 晋州 等處藏此書冊板

2)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역대장감박의(歷代將鑑博議) 책판목록

- 홍주: 12, 13, 14, 15(51~2437)
 - 수원: 12, 13, 14, 15(51~2437)
 - 원주: 12, 13, 14, 15(51~2437)
 - 해주: 12, 13, 14, 15(51~2437)
 - 상주: 12, 13, 14, 15(51~2437)
- 장지(壯紙) 25첩(貼), 별장(捌張) 2흑(黑), 2정(丁) 21, 32~15 A 33~4A
- 제주향교: 111~36B
 - 관서관촬영: 10권 장(藏), 결완(缺頑), 인지(印紙) 9첩(牒) 10장(張) 31
- (한국책판목록총람에서 p.376)

3) 내사본 역대장감박의(歷代將鑑博議): 심우준저 내사본에서 옮김

① 전존최고(傳存最高)의 내사본(內賜本) 서적의 반사(頒賜)는 기록상으로 고려 정종(靖宗) 11(1045)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전존(傳存)된 내사본 가운데 가장 이른것이 무엇이다 라고 아직 제시가 안되어 있다. 다만, 개설서에서 경자자(庚子字)의 주조에 대하여 기술한 가운데 참고로 제시한 것이 선조 23(1590)년에 인출된 논어언해, 맹자언해, 중용언해, 대학언해의 내사본이 도산서원에 간직되고 있다. 또한 광해군 10(1618)년 갑인자(甲寅字) 개주하여 인출(印出)한 듯한 서전대전(書傳大全)에 인조원(仁祖元)년의 내사가 있는 것을 유시부(楡時溥)씨가 간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기록상으로는 고려때부터 이미 서적의 반사가 있어 왔던 바 아직까지 전래된 내사본의 최고연대가 인조원년(1623)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내사본에 대한 무관심에서 그 탓이 있는 것 같다. 국내에서도 중종 28(1533)년 갑진자본(甲辰字本), 춘추좌전직해(春秋左傳直解)가 내사본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앞의 도산서원장의 논어, 맹자, 중용, 대학언해보다도 57년이나 앞선 것이다.

심우준(沈遇俊)씨에 의하여 일본국에 있는 한국본 조사가 되었는데 그의 저를

보면 내사된 책의 연대가 다음과 같다.

• 중종 21(1526)년간 갑인자본, 산곡내집(山谷內集): 존경각문고

• 중종 15(1520)년간 을해자본 소보우공주의(少保于公奏議): 봉좌문고

• 중종 10(1515)년간 갑인자본, 예문유취(藝文類聚): 동양문고

• 중종 28(1533)년간 음점춘추좌전상절구해(音點春秋左傳詳節句解)

• 세종 19(1437)년간 갑인자본 역대장감박의(歷代將鑑博議): 서능부(書陵部)

그 중 「역대장감박의」는 우리나라에 있는 「춘추좌전직해(春秋左傳直解)」보다 96년이나 앞선 것으로 현존 최고의 내사본(內賜本)이 되는 셈이다.(심우준씨 설)

▼ 일본에 유전(流傳)된 한국서적



「歷代將鑑博議」, 戴溪(宋)撰. 甲寅字本. 世宗 19(1437)年刊. 書陵部(6881.9.403-31)藏

② 대계(戴溪)의 역대장감박의「歷代將鑑博議」의 내용

이 갑인자본 「歷代將鑑博議」의 원표지가 탈락되고 후에 다색표지(茶色表紙)로 개장되어 봉면(封面)에는 있어야 할 내사기(內賜記)가 없어져서 과연 누구에게 하

사한 것인지 그 구함(具銜)과 성명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다행히 서수(序首)에 '의사지기(宜賜之記)'의 내사인(內賜印)이 선명하다. 외제에는 '歷代將鑑博議'라고 묵서(墨書)되어 있고 표지 다음에는 지정을사(至正乙巳) 공민왕 14(1365)년 추팔월(秋八月) 정해삭(丁亥朔)에 제2갑사 진사 출신 회계(會稽), 양유정(楊維禎)의 서(序)가 있고 별면에 이어서 소흥(紹興) 고려 인종 19(1141) 중추일(仲秋日)에 쓴 송(宋)나라 대계(戴溪)의 자서(自序)가 있고 또한 별면에 이어서 목록상하에 수록된 인물이 다음과 같이 있다.

〈卷之一〉戰國: 孫武 范蠡 田穰苴 孫臏 吳起 樂毅 田單 趙奢 廉頗 李牧 白起 王翦 蒙恬.
〈卷之二〉西漢: 張良 韓信(上下) 樊噲 周亞夫 衛青 霍去病 李廣 李陵 趙充國 馮奉世 陳湯.
〈卷之三〉東漢: 鄧禹 鄧訓 寇恂 馮異(上下) 賈復 吳漢 岑彭 耿弇 耿恭.
〈卷之四〉東漢: 王霸 藏宮 祭遵 馬援 班超 竇憲 虞詡 皇甫規 皇甫嵩.
〈卷之五〉三國: 魏: 張遼 司馬懿(上下) 鄧艾. 蜀: 諸葛亮 關羽 魏延. 吳: 周瑜 魯肅 呂蒙 陸遜 陸抗.
〈卷之六〉西晉: 羊祜 杜預 王濬 馬隆 周處. 東晉: 祖逖 周訪 陶侃 謝玄.
〈卷之七〉南北朝: 秦: 王猛(上下). 宋: 檀道濟 王鎮惡. 梁: 韋叟. 魏: 崔浩(上下) 于謹. 齊: 斛律光. 周: 韋孝寬.
〈卷之八〉隋: 長孫晟 楊素 韓擒虎 賀若弼 史萬歲.
〈卷之九〉唐: 李靖 李勣 李孝恭 蔚遲恭 蘇定方 薛仁貴 裴行儉 唐休璟 張仁愿 王忠嗣 李光弼.
〈卷之十〉唐: 郭子儀(上下) 李抱真 李晟 李愬 馬燧 渾瑊. 五代: 梁: 王彥章. 唐: 郭崇韜.

대계(戴溪)는 삼대 이하로 장수가 된 자들이 그 공만을 계산하고 덕을 계산하지 않으며, 재를 택하고 행을 택하지 않으므로 문·무의 도가 이어 분열되어 인의 시례(仁義詩禮)가 거의 없음을 한탄하고 이 책의 저술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이 책을 춘추시대 손무(孫武)로부터 오대시대(五代時代) 둔송도(敦崇韜)에 이르기까지 94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재품의 고하와 기량의 대소와 지계의 장단을 논하고 그 이름을 장감박의(將鑑博議)라 하였다. 대계는 저작의도를 선한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은 경계하도록 후인이 과거를 보아

서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두었다. 양유정(楊維禎)은 이 책의 서문에서

“장수는 민의 사명(司命)이고,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된다. 용병(用兵)을 잘 하는 자는 반드시 인의로써 도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낭잔호폭(狼殘虎暴)하여 사람의 피를 빨고, 자기도 끝내는 죽게 된다. … 권모술수(權謀術數)나 사력을 자용하고 음살(淫殺)한 마음을 사용하여 자기도 그릇되고 국가도 망친 자가 사책에 보이고 있으니 슬픈 일이다.”

라고 하였다. 요컨대 이 책은 악한 자는 복칠(覆轍)을 삼고 선한 자는 지남을 삼아 처세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형태서지적(形態書誌的) 특징과 증보판(增補版)의 성격

이 책은 권두제서(卷頭題署)에는 ‘歷代將鑑博議 권제일(卷第一)’이라고 있고 차행(次行)에 성원대계소망선(省元戴溪小望詵)이라고 되어 있다. 사주쌍변(四周雙邊: 21.2×16.9cm)으로 되어 있고, 유계(有界) 9행 18자, 자경(字徑)은 1.4×1.2cm, 백구(白口), 상하 하향흑어미(下向黑魚尾)로서 판심제(版心題)는 장감(將鑑)이 상어미 하(上魚尾下)에 있고, 하어미 하(下魚尾下)에는 장차(張次)가 있으며 상품 저지(摺紙)를 썼다. 권말제(卷末題)는 ‘歷代將鑑博議第十’ 별면에 영락원 태종 3(1403)년 춘삼월에 계미자(癸未字)를 주자했다는 발(跋)이 있다. 이 발(跋)을 成宗 9(1478)년에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동문선(東文選)중의 권근(權近)의 주자발(鑄字跋)과 비교해 보면 10행째 이직(李稷)아래에 ‘여성군신민무질(驪城君臣閔無疾)’ 일곱 자가 없고, 16행 공(恭)자 아래에 있는 유(惟)자가 유(猶)자로 되어 있고, 다음 면 4행째 성력(聖曆)아래의 ‘지영은(之永恩)’은 ‘지교(之教)’로 되어 있고, 미견(彌堅)자 아래에 ‘의(矣)’자가 ‘주(朱)’로 오식(誤植)되어 있다. 또한 한 행을 떼고 시작된 영락 20(세종 4:1422)년 동10월 갑오에 변계량

(下季良)이 쓴 경자자발(庚子字跋)이 있고, 또한 한 행을 떼어서 세종 16(1434)년 추 9월에 김빈(金殯)이 쓴 갑인자주자발(甲寅字鑄字跋)이 있고, 별면에는 세종 19(1437)년에 남수문(南秀文)이 쓴 발문이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19년 7월 정미의 기사에는 “세종은 집현전에 명하여 사전(史傳)을 참고하여 장감박의(將鑑博議)에 실려 있는 여러 장수들의 사실을 선집하게 하고 집현전 응교 남수문(南秀文)으로 하여금 그 권미(卷尾)에 발을 짓도록 명한 바 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 책이 인출된 것은 확실하다. 이 책에는 좌백후모리고표자백송장서화지인(佐伯侯毛利高標字倍松藏書畫之印), 비각도서지장(秘閣圖書之章), 제국도서지장(帝國圖書之章) 등 세 개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④ 원저(原著)입수와 증보판의 일본유출

이 책이 과연 언제 중국에서 간행되었으며 그 간행된 책이 언제 우리나라에서 개수(改修) 인출(印出)되었으며 이 인출된 개수판이 언제 일본에 유전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대계(戴溪)의 자서를 보면 역대화인(歷代華夷)의 성쇠와 용병 피기의 승부를 자세히 기록했다는 요지의 집필시기가 고려 인종 19(1134)년이고, 우할장공(右轄張公)이 이 책을 오흥(吳興)에서 얻었다는 시기는 그의 생존연대로 보아 양유정(楊維禎)과 거의 같은 시기인 1364년 이전일 것이며 양유정이 이 책의 서문을 쓴 것은 공민왕 14(1365)년에 해당되니 그 이후에 이 책이 한국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에는 수입 시기에 대한 기사가 보이지 않고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19(1437)년 7월 정미조에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인출(印出)하도록 하라는 기록이 있어 한국에서 개수판이 나온 시기를 짐작할 수 있고 남수문의 발을 통하여 세종 19년 8월경에 인쇄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인출된 이

책이 과연 일본에는 어느 때에 유출되었을까. 서능부(書陵部)에 소장된 이 책에서 「佐伯侯毛利 高標字倍松 藏書畫之印」이라는 장서인이 주목되고 있다. 이 장서인중 모리고표(1755~1801)라는 인물은 장서가로 이름이 나있는 사람이다.

이 책에도 위와 똑같은 형식으로 인이 찍혀 있어 영조 31(1755)년부터 순조원(1801)년 사이 이전에 이미 모리고표(毛利高標)에 의하여 입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홍엽산문고(紅葉山文庫)에 소장하였는데 그 사실을 장서인(藏書印), 비각(秘閣), 도서(圖書), 지장(之章)으로 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고종 28(1891)년에 궁내청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⑤ 중국에서의 출판 경위

이 책을 역대 예문지에서 찾아보면 이미 「송사에문지(宋史藝文誌)」에 「戴溪歷代將鑑博議 10卷」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요금원에문지(遼金元藝文志)」등에는 수록되고 있지 않으며, 「續文獻通考」 경적고에 와서 다시 수록되고 있다. 초판이 송에서 고려 인종 19(1141)년에 출판된 이후 재판이 고려 공민왕 14(1365)년에 나왔다고 한다면 224년 만에 재간된 셈이다. 원래로 우할장공(右轄張公)이 오흥(吳興)에서 얻어온 것으로 되어 있으니 중국의 출판경위는 알 수 있으나, 이 책이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 어떤 수단으로 우리나라에 입수되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다.

⑥ 「역대장감박의」 증보기사 일례(원본 기사생략)

대계(戴溪)의 「歷代將鑑博議」의 기사중에서 세종의 명에 의해 증보된 「孫武」의 증보기사와 원본의 기사를 한 예로 들어 우리말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손무(권모)에는 뛰어났으나 인의에는 부족했다. 손무는 제(齊)나라 사람이다. 병법을 오왕 합려(閻)에게 보인 적이 있

었는데 합려가 말하기를

“그대의 저서 13편은 다 읽어 보았습니다. 다마는 병(兵)을 다스리는 법을 약간 시험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합려가 다시 묻기를

“여자들로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하니 그렇다고 했다. 이에 시험하기로 하고 궁인 미녀를 나오게 하니 180인이 되었다. 손자는 2부대로 나누고 왕의 용회 2인을 각각 대장으로 삼아 창을 쥐게 하고 호령하기를

“너희는 너의 심장과 좌우 두 손과 등을 아는가”

하니

“압니다.”

하고, 손자가

“대열에 있어서 앞의 군사는 심장에 해당되고 왼 쪽은 왼 손에, 오른 쪽은 오른 손에, 뒤 쪽은 등에 해당된다.”

하니 여인들이 그렇다고 인정했다.

약속이 이미 포고되고 이내 크고 작은 무기가 지급되고 곧 반복해서 명령하고 주의를 주고 이에 복을 치니 바른편에 섰던 부인이 크게 웃었다. 손자는 “약속이 분명하지 못하고 훈령이 익숙하지 못한 것은 장수인 나의 죄다.”하고 다시 반복해서 명령과 주의를 주고 복을 치니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부인이 크게 웃었다.

손자는

“약속이 분명하지 못하고 거둬 영(令)이 익숙하지 못한 것은 장수인 나의 죄이다. 그러나 이미 분명히 일렀는데도 법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은 대장(官吏)의 죄이다.”

하고 이어 좌우의 대장을 죽이려 하니 오왕(吳王)이 대 위에서 장차 애회(愛姬)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 급히 사자(使者)를 보내어 명령을 내리기를

“과연 이미 장군께서 용병에 능함을 보았다. 과인은 이 두 애회가 아니면 먹어도 맛도 없을 정도이니 죽이지는 말라”

하니 손자가 말하기를

“저는 이미 명을 받고 장수가 되었습니다. 장수는 군진(軍陣)에 있을 때 임금의 명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고 결국 두 대장을 죽였다. 이에 다시 북을 치니 여인들의 좌우 전후와 꿇고 일어서는 것이 자로 재뿔 먹줄을 튕기듯 정확하여 감히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에 손자가 사자(使者)를 시켜 왕에게 보고하기를

“이젠 병(兵)이 다 정제(整齊)되었으니 왕께서 직접 시험하실 수 있으며, 내려와 이를 보시면 꼭 임금이 쓰고자 하는 바일 것이니, 비록 물이나 불과 같은 곤경에 처하더라도 오히려 이겨 낼 수 있습니다.”

하니 오왕(吳王)은

“장군은 그만 두고 집으로 가시오. 과인은 내려가서 보고 싶지 않소”

하였다. 손자는

“왕은 한갓 그 말에만 그치고 인물을 쓸 줄 모릅니다.”

하니 이에 합려는 손자가 용병에 능한 것을 알고 마침내 장수로 삼았다. 합려 3년에 합려가 초(楚)와 서(舒)를 치고 영에 들어가고자 피하니 손자가

“백성이 피로하여 그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4년에 초를 치고 5년에 월(越)을 쳐서 무너뜨렸다. 6년에 초가 자상낭와(子常囊瓦)를 시켜서 오를 치니 오가 이에 대항하여 격퇴시켜 초군을 대패시켰다.

9년 합려가 손무에게 말하기를

“3년전에 그대의 말은 영을 침입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과연 어떤가”

하니 대답하기를

“자상(子常)은 탐욕이 있고 당과 채는 모두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니, 왕께서 크게 치고자 하시면 반드시 당·채를 우리편으로 얻은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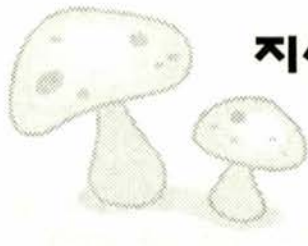
합려가 이 말에 따라 당과 채와 더불어 초를 쳤고, 초도 또한 병(兵)을 일으켜 오에 항거하니 합려의 동생 부개가 싸우고자 하였다. 합려가 허락하지 않으니 부개가 하는 말이

“왕께서 이미 저의 병(兵)을 귀속시켰고, 병은 이로써 상책을 삼는데 오히려 어찌 이를 기다리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초를 습격하니 초가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오왕이 드디어 추적병의 무리를 쫓아서 영에 이르렀다. 다섯번 전투하여 초가 다섯번 다 패하니 초의 소왕(昭王)은 도망하여 영을 빠져 나왔고, 오병이 드디어 영에 들어갔다. 10년에 월(越)나라가 오왕이 영에 있어서 오나라가 비었다는 것을 듣고 오를 치니 오는 별도의 병력으로 하여금 월을 치게 했다. 초는 위급함을 진나라에 알리니 진나라가 병력을 보내어 초를 구하고 오를 치니 오의 군사가 패하였다. 부개는 진(秦)과 월(越)이 교대로 오(吳)를 패하게 해서 오왕이 초나라에 남아 그곳을 버리고 오나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합려가 이 소문을 듣고 곧장 병력을 이끌고 오나라로 돌아가 부개를 치니 부개는 패하여 초나라로 달아났다. 11년에 오왕이 태자(太子) 부차(夫差)로 하여금 초를 치게 했다. 19년에 오가 월을 치니 월왕 구천(句踐)이 대항하여 싸워 이를 고소산(姑蘇山)에서 물리치고 합려의 손가락을 상하게 했는데 심해져서 죽었다. 부차(夫差) 7년에 부차는 제경공(齊景公)이 죽고 새 임금의 나약함을 듣고 제를 쳤다. 9년에 추(騶)를 위하여 노(魯)를 쳤다. 11년에 다시 제를 쳤다. 14년에 오왕이 제후들을 황지에 모았는데 월왕 구천이 오를 치를 태자 우(友)를 포로하였다.

오나라 사람들이 부차에 패배를 알리니 부차는 그 소문을 싫어하였다. 간혹 그 말을 입에 담는 자가 있어 노하여 7인을 막하(幕下)에서 죽였다. 18년에 월나라가 입택(笠澤)에서 오나라 군사를 패배시켰다. 20년에 월이 다시 오를 쳤다. 21년에 드디어 오를 포위했다. 23년에 오를 무너뜨리고 오왕을 용동(甬東)땅에 보내고자 하니 오왕이 마침내 자결하였다. (용동은 구장현 동해중의 주이다)



지상으로 보는 홍주 향토 박물관



편 집 실

가치 「홍주향토박물관」이라 전시관을 설치코자 하는 홍주인의 발언이 있었던 점을 상기하며
본 편집실에서는 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유명문화 유물들을 찾아 발굴 정리한다.

홍주향토박물관을 설치하는데에는 시기 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의식문제 등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뤄져야 될 문화사업인것만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다.

홍주향토박물관이 홍주인의 힘으로 역사의 정통성을 향유할때를 기다리며, 소개하는 문화유물들은 전문인의 고증과 해설이 있어야 되겠으나, 완벽을 기하기 위한 시행착오의 누를 범하며, 본란에서는 무작위로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만으로 자료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소개하는데 주력코자 한다.

등을 저장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같은 모양의 토기는 흔히 이 지역에서 자주 발굴되고 있다.



자료1) 土 器: 높이 30cm



홍성군 갈산면에서 출토된 회흑색 경질(硬質) 토기이다. 보름달같이 풍요로운 향아리로써 곡식

자료2) 토기 고배(高杯): 높이 9.5cm
홍성군 서부면 해변가에서 출토된 無蓋高杯(무개고배)이다.

받침대의 모양이 가야토기의 전형을 따르고 있어 백제권인 이 지역에서 출토된 것이 특이 하다. 추정해 본다면 서부면 해안가는 중국으로 통하는 항로의 관문이었던 점을 상기해보면 가야토기에서 약간 변형된 이같은 토기도 출토될 수 있는 것이다.

자료3) 토기병(土器瓶: 높이 16cm)

보령군 청소면의 토기 가마터는 통일신라 때 유명했던 가마터로써 지금도 발을 일구다보면 깨어진 파편이 한 지게씩 출토되는 곳이다. 살조개같은 특이한 모양으로 면발치에서도 청소가마 토

기는 확연한데 이 토기는 그런 파편들과 함께 출토된다. 조그만 병으로 술을 담아 놓고 먹었던지 기름을 저장해 두었던지 했을듯한 어리숙한듯, 한번 취한듯, 무위자연한 백제인의 숨결이 완연한 토기병이다.

자료4) 토기파편

청소가마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향수병도 될듯한 것도 있고, 깨소금 단지도 될만한 양념단지등의 이리저리 찌그러진 항아리들은 하나같이 살조개 모양의 빗살문이 성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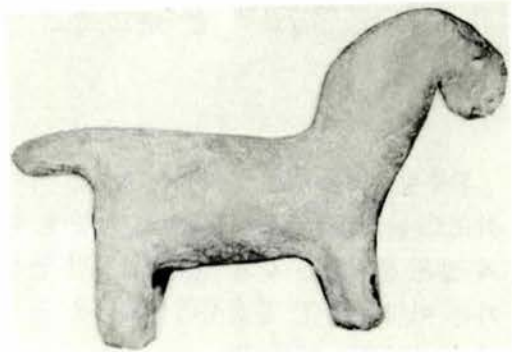
안압지에서 발견된 토기중에도 청소가마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파편이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가마터는 지방에서 사용된 토기와는 모양을 달리하고 있어 중앙 관청으로 상납되었던 토기가 아닌가 추정된다.

이러한 토기 가마터

는 보존가치가 높다는 학계의 여론도 있지만 아직 우리의 문화수준은 이런곳에 돈을 투자할만큼 성숙되지 못했다.

자료5) 토우(土偶) 말: 높이 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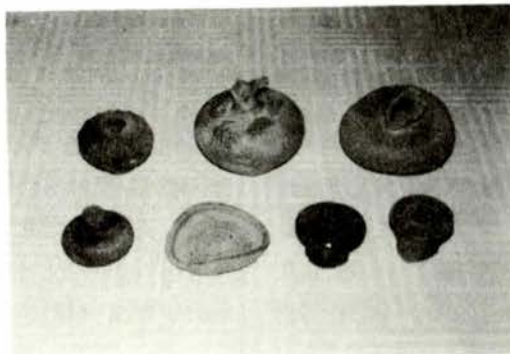
어떤 기형(器形)이나 동물을 본떠서 만든 토기를 지칭하는 토우는 주로 신라 토우로 통칭된다.



부장용(副葬用)으로 만들어진 이 말모양의 토우는 소박함이나 예술성으로나 뛰어난 솜씨를 엿볼수 있으며 자세히 관찰해보면 한번의 터치로 조성되었을뿐 아니라 만든이의 지문이 그대로 있어 고인의 숨결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게 한다.

토우에 나타나는 동물상에는 대개 십이지(十二支)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말들은 대체로 마구를 갖춘 상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구가 없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토우는 공예적인 면에서도 중요시

되는 유물이지만 당시의 우주관이나 사생관(死生觀)을 해석하는데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名稱의 考證資料中心으로(忠淸南道文化財資料 306號)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田 玉 鎮

차
레

1. 머리말
2. 문화재지정 경위와 형방청
 - 고증(考證)착오로 형방청(刑房廳)으로 둔갑
 - 형방청(刑房廳)을 고수하는 향토사가의 주장
 - 형방청(刑房廳)이라 주장하면서 제시된 고증(考證)과 기록(記錄)
3. 해체복원(解體復元)개요
4. 발견된 상량문과 해설
5. 고사(土地之神告祀)와 복원상량식(復元上樑式)
6. 전적에 나타난 결성 관아
7. 맺는말

1. 머리말

우리나라는 무궁한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 문화 또한 찬란하다. 전세계를 통하여 손색없고 특색있는 문화의 발자취가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하여 있어 요즘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선현들은 그 기록을 정리하여 전했건만 보존되지 않아 지금 우리들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900여회의 외침과 36년간의 일제침략으로 기록을 보존하기란 대단히 어려웠을 뿐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의 맥을 끊기 위하여 갖은 일을 다했다.

하늘 상공에서 보면 서울시청, 총독부 건물(현, 박물관)들을 한국의 맥을 끊기 위하여 조선궁궐인 경복궁 앞을 가려 지었다하여 설계자체도 대일본(大日本)이란 한자모양에 따라 설계했다는 말이 구전하고 있음은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

하여 모든 기록이 일본사람의 손에 의하여 손실되고 또 선현들도 일본사람이 너무 무서워 보존했다가 일인에게 발각되면 큰 곤욕을 당하게 되니 우리 스스로 폐기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 무엇이 남아 있겠는가!

그러나 그 혼란속에서도 전통을 입증하는 석조물과 건축물의 일부가 남아 선현들의 우수했던 문화기술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고장은 지형적 여건이 중추기능을 맡아야할 위치에 있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해안을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할 특수한 지역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옛 문화의 흔적으로 홍주성을 위시하여 안회당, 조양문, 여하정과 같은 조선조 건물의 원형을 복원하여 현존하고 있으며, 결성에도 조선조건물로 결성동헌(망일헌:望日軒), 책실(冊室), 현사(縣司)등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우수했던 우리문화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기록은 보존되지 않아 후세에 전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여러문헌을 찾아 사실을 밝혀 후세에 전하는 길이다.

결성에도 고래건물을 해체복원하면서 명칭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즉 '형방청'이란 이름을 어느 학자와 문화재전문위원이 확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왔는데 해체복원하면서 살펴보니 형방청(刑房廳)이란 명칭은 전혀 없는 말을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비가 되고 있는데 즉시 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방청(刑房廳)이란 명칭을 고집하고 있으니 향토사를 연구하는 원래의 뜻과도 거리가 먼 듯하다. 그러기에 필자는 그 경위를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문화재 지정과 형방청(刑房廳)

우리 지방은 조선조때 홍주관찰사의 치소로 위로는 평택, 아래로 서천까지 22개 군을 조정을 대신하여 중간 통치기능을 맡아보던 곳이다. 그러나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면서 전국에서 제일먼저 구국운동이 의병의 주도로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군이 제일먼저 홍주 통치문제가 대두되어 병력과 행정력을 총집중했던 곳이다.

그러므로 1914년 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결성을 면으로 홍성군에 예속시키고 면과 주재소를 설치했다. 그 당시 면사무소를 현재 복원된 동현(조선조 현감치소)에서 업무토록 하고, 주재소는 현재 복원 완료한 현사(縣司)를 사용하다 8·15해방과 동시에 대한민국 경찰 지사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경위를 거치다보니 그 재산권이 내무부소관 재산으로 확정되어 오던중 결성지서가 지서건물을 근대식으로 신축하여 이사하니 그 건물은 예비군중대에서 임시 사용했으나, 예비군 사무소도 부속건물을 다시 지었으니 자연적으로 공가(空家)가 되어 노후로 붕괴직전에 놓여

졌다. 그러므로 경찰의 상황보고로 권한 있는 충청남도 경찰국장의 철거명령이 내려졌다.

이 결성지역에는 문화재를 애호하며 향토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러분이 있다. 이 학자들의 모임을 결성면 문화재보호회(結城面 文化財保護會)라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위 보호회에서 충청남도 경찰국장을 직접 찾아가 철거는 불가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건의함과 각 정부 요소에 보존건의서를 제출했고, 막후 절충을 통하여 철거명령이 취소되는 행운을 보게 되었으니 위 보호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건물을 오늘까지 보존되는 행운이 있었고, 또 완전복원하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나, 그 건물명칭이 형방청(刑房廳)이라 현재까지 전해오고 각종문서에도 형방청이라 전한다. 형방(刑房)이란 대전회통(大典會通)이란 문헌에

「조선시대의 관청 (1) 승정원(承政院)의 6방(六房)의 하나인데, 형전(刑典)을 맡아 보는 곳으로 우부승지(右副承旨)가 책임자이다.

(2) 지방관아(地方官衙) 6방(房)의 하나로 형전(刑典)을 맡아보는 관청이다.」 하고 있음을 참고한다면, 현직제상의 검찰청과 법원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 틀림없다.

이 건물의 연대가 조선조말기에 건축되고 보수되어 사용되었기에 결성현감(結城縣監)의 치하(治下)에 형방(形房)을 두어 형전(刑典)을 전임할 필요가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결성현지 여러곳을 들쳐보아도 형방(刑房)이란 단어(單語)조차 찾아볼 수 없다.

(文獻參考: 結城縣誌, 肅宗 22年 丙子 (1696) 結成邑誌 建陽2年(1897) 結城邑誌 韓未, 洪城郡誌, 大正 13年(1924), 結城縣地圖奎章閣所藏)

우리들이 참고하여야 할 전적(典籍)은 위 문헌외는 규명할 곳이 없다.

◎ 고증(考證) 착오로 형방청(刑房廳)으로 둔갑

학문을 하는 학자들은 학자의 직위만 믿고 아무런 근거없이 의사결정하는 것은 만대에 용서받지 못할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때로는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 착오를 알았으면 즉시 사실을 시인하고 수정하여야 하는것이 학자의 도리이다. 내가 했으니 끝까지 고수해야겠다는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학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형방청(刑房廳)이란 명칭의 형성과정을 알아 보았더니 그럴법도하다. 그 건물이 경찰이 근무하는 경찰관서로 이용해왔으니 옛 명칭으로 포도청(捕盜廳) 그 위의 명칭이 형방(刑房)이다. 그러므로 경찰이 보존해오던 건축물관리대장(建築物管理臺帳)에(사진참조)

「이 건물은 憲房廳이었다 전한다」(즉 刑房廳이 아니고 憲房廳이라 기록됨)라고 된 것을 헌방청(憲房廳)은 없는 말이니까 형방청(刑房廳)이라 정정하여 확정한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고증한 학자는 윤무병(尹武炳)교수와 허선도(許善道) 문화재전문위원이었고 가침하여,

“이 건물은 형방청사(刑房廳舍)로 사용한 건물이며 국내에 유일하다고 높이 평가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특별히 보존하여 한다고” 강조했다 한다.

그 당시의 문헌 결성읍지(結城邑誌-建陽 2年:1897)의 직제내용은(官職內容)

「縣監 …… 文六品, 訓導 1員(今廢), 座首 1人, 別監 2人, 軍官 30人, 衙前 30人, 知人 15人, 使令 15人, 官奴 11人, 官婢 10人……」이다.

위 자료에서 형방(刑房) 또는 형전(刑典)을 맡아 처리할 관원이 직제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기록에는 없다.

◎ 형방청(刑房廳)을 고수하는 향토사가의 주장

「본 청사는 결성읍내리 321번지에 고래식 기와집(古來式蓋瓦葺)의 건평 24평반

의 본관과 부속사(行廊三間=1982년 이전시 도괴) 건물로 중건당시는 고종32년 홍주부속(洪州府屬), 결성군치(結城郡置)시의 다음해로 많은 변화기에 작청(作廳)의 목적으로 건축한 후에 즉시 형방청사로 사용되었음이 시사(示唆)되는 기록과 고증이 많다.」라고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형방청(刑房廳)이란 명칭을 고수하기 위한 아집(我執)에서 추정된 학설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이 건물 해체복원 당시 발견된 상향문(上樑文)에

「維歲次丙申三月丙申朔二十五日庚戌運主甲子生金商燉敢昭告于」

(解) 때는 병신년(1896) 3월 병신(초하루일진) 25일 경술(일진) 運主 甲子生金商燉은 감히 고하나이다.

中略 …… 「伏以本廳邑務所管公退攸居畫聖而塗黃研朱而瀋墨衣冠分職而繼日簿牒靡暇於鳳宵 …… 中略

(解)…중략… 업드려 살피건데 이 건물 청사는 공무를 맡아 보다 퇴근하여 조용히 거처하면서 물감풀어 그림 그리고, 먹 갈아 글씨 쓰되 관원들이 바쁘고 한가한 사람이 서로 교대하고 각종 장부는 저녁에 정리했다.

中略 …… 「茲以本廳重修之舉果際我侯筮政之初文正復存於今清獻回專於古繕廠而完聚損畧而增貲漸民以仁廊用而愛 추以義而盡其力使以悅而忘其勢」…… 後約

(解)…중략…이제 이 건물을 중수하게 되었으니 과연 우리 현감이 부임하여 처음부터 예전 선현의 문헌을 따라 모든것을 바로 잡고져 하매 부서진 곳을 고치며 공금을 쓰고 바로 채워서 백성을 착한 마음으로 다스리고 모든 물자를 아껴쓰며 의로서 힘을 다하니 일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여 어려운 줄 모르더라. …후도약함

이상의 상량문기록에서 이 건물이 전에 있던 건물을 ①보수한다는 사실과 ②관아 건물(공무집행하는 청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관원들이 수양하는 곳으로 활용되었음이 틀림없다.

다시말하면 이 건물이 형방청(刑房廳)

이었다면 형전(刑典)을 집행하는 관청으로 규율이 엄격하여야 하며 퇴근전에 서로 교체하며 서화로 수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작청(作廳)의 목적으로 건축한 후 즉시 형방청사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기록은 어떤 기록을 보증자료로 삼고 주장하고 있는지 애매하다. 다만 대정 13년(日本年號=1924) 일본정부하에서 홍성군수로 부임한 이민영(延安 李敏寧)이 홍성, 결성을 합쳐 일어(日語)를 혼용하여 홍성군지(洪城郡誌)를 발간한 사실이 있다. 이 기록중에

- (1) 객관(客館) 41칸 대정 12년(1923)에 결성보통학교에 양여
- (2) 동헌(東軒=현日軒) 대정 12년(1923)에 면사무소로 양여
- (3) 향청(鄉廳) 대정 12년(1923)에 결성보통학교 숙직실로 양여
- (4) 공청(工廳) 대정 9년(1920)에 결성보통학교로 양여
- (5) 장청(將廳) 대정 6년(1917) 11월 결성우체국장 나가야마세이이찌료(中山清一郎)에게 매각
- (6) 현사(縣司) 대정 6년(1917) 8월 결성우체국장 나가야마세이이찌료(中山清一郎)에게 매각
- (7) 진의루(振衣樓) 대정 12년(1923) 결성면 매각
- (8) 급창청(級唱廳) 대정 6년(1917) 회폐
- (9) 내아(內衙=平近室)이 태왕 25년(1888) 회폐
- (10) 작청(作廳) 현 경찰서 주재소 충용
- (11) 빈일루(賓日樓), 성동문루(城東門樓) 옛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상의 참고자료에서 형방청(刑房廳)이란 관아명칭은 전혀 찾아 볼수도 없고, (5)번 장청은 1917년 11월 결성우체국장 일인 나가야마세이이찌료에게 매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청의 면적이 조선와집 16평 9작(결성향토사학자의 주장대로하면 24평반이 되어야 함)이므로 전혀 합치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10)번 작청(作廳)이

라 주장한다면 이 홍성군지의 기록대로 현 경찰서 주재소로 충용하고 있다는 기록을 믿어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볼만한 일이라 하겠으나, 창건 당시는 “작청을 목적으로 하여 바로 형방청으로 했다는 이론을 성립하기 어려운 논리라 하겠다.

◎ 형방청(刑房廳)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된 고증(考證)과 기록(記錄)

(1)의 내용중 경찰보관 관리대장에는 헌방청(憲房廳)이었다고 기록되어 신빙성없는 자료이며

(2)의 포도청(捕盜廳)자리로 전래한다는 고증도 이 건물 명칭과 연계되지 않으며

(3)번 작청에 대하여는 배제할 수 없는 일이며 위에서 설명과 같이 연구대상이 된다 하겠다.

(4),(5),(6),(7),(8),(9),(10)사항은 형방청이란 관아 명칭과는 하등의 관계없는 자료이고, (11)항의 배동순(裵東順)씨의 조사서에 충청도 20여 관아 형방청 표시는…위에서 설명한대로 현지 조사한 윤무병(尹武炳)교수와 허선도(許善道) 문화재전문위원의 오판으로 형방청(刑房廳)이라 정해졌으므로 인용한 것 뿐이고, 그 외에도 각종 자료에 지금까지 형방청으로 기록되었으니 학자들의 일시적인 착오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12),(13),(14)번의 자료도 형방청을 유지하려는 주장에 불과하고 고증자료로 활용할 가치로 인정하기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그외로도 홍성군의회에서 모 의원이 이 문제를 공식석상의 질문으로 논란이 있었고, 필자의 위와같은 답변이 의사록에 기록되어 남아있다. 필자는 언제라도 고증되는 자료가 발견되어 입증만 해준다면 어느 명칭이라도 감수하고 사실대로 바로 잡히기를 바랄뿐이다.

“參考” 刑房廳을 主唱하는 考證과 記錄

◎ 고증(考證)과 기록(記錄)

1. 홍성경찰서 결성지서 연혁에 이조시

대 형방청이라 칭하여 오든바, 1910년 8월 한일합방 당시 순검청(巡檢廳)으로 개칭 사용하고 1915년 3월 1일 경찰관 주재소로 개칭후 8·15해방과 더불어 결성지서 청사로 사용하다가 1982년 9월 25일 구청사 노후로 읍내리 379번지 신축청사로 이전하였다.(경찰연혁)

彙(洪城郡誌 1924年)

8. 현건물 실휴수 二十四坪半(복원공사 대표 증명)
9. 客舍直, 鄉校直, 表示(結城邑誌)
10. 本廳사는 廳直, 朴奉孫(上梁文)
11. 襄東順氏調査書에 忠淸道二十余官衙刑房廳表示

建 物

洪城縣志(結城文書)

在洪城郡誌成回 8.10.12.30 等也

建 物	位 置	面 積	備 註
刑房廳	在 縣 署 前	24.5坪	1910年 8月 1日 創設
客舍	在 縣 署 右	10坪	1915年 3月 1日 改稱
鄉校	在 縣 署 左	15坪	1915年 3月 1日 改稱
本廳	在 縣 署 後	20坪	1982年 9月 25日 改稱
新築	在 縣 署 前	24.5坪	1982年 9月 25日 創設
舊廳	在 縣 署 前	24.5坪	1982年 9月 25日 廢止
總計		78.5坪	

2. 고려 흥무 8년(1375) 결성면 원금곡에 위치했던 신금성지가 폐쇄되고 1413년 읍내리로 이전 현위치에 현감하여 포도청(捕盜廳)자리로 전래, 그후 1736년 복원후 1896년 다시 중건(古韓屋建物明細書)

3. 작청(作廳): 現以警察官駐在所充用(洪城郡誌 1924年)

4. 新井定四等郡, 官職, 郡守一員 鄉長一人, 巡校四人, 首書記六人, 通人二八使令六名等順位(結成邑誌 1897年)

5. 1750년과 1790년경 結城縣地圖와 邑官衙圖에 刑將廳, 明示縣地圖

6. 縣司=戶長所居(洪城郡誌 1924年)

7. 縣司=建坪十二坪七合三勺, 朝鮮瓦

12. 縣司=銀木下地, 현위치 刑將廳地圖와 같다. (東門中心)

13. 서해안의요충지로 1800년경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刑房廳과 將廳을 합쳐진 形將廳이라 칭했다.

14. 본청명칭을 형방청(刑房廳), 형청(刑廳), 포도청(捕盜廳), 형옥청(刑獄廳), 형장청(刑將廳), 순검청(巡檢廳)등으로 전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비교, 판단 해본 결과 현사(縣司)란 불가하고 형방청이 분명함을 증명해 본다.

본래 결성형방청론(結城刑房廳論)과 부당한 현사안(縣司案)

황 성 창

결성은 고대로 역사깊은 유명한 부족국가(部族國家)로 존재해온 서해안의 중심요충지라고 전하여 온다. 특히 백제(百濟)의 결기군(結己郡), 신라(新羅)시 결성군(潔城郡)과 고려와 이조시까지 군,

▼ 형방청 복원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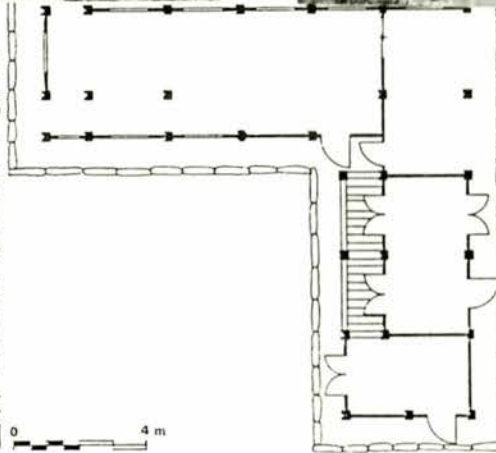


(作廳), 사령청(使令廳), 현사(縣司), 급창방(及唱房), 책실(冊室), 장청(將廳), 장방(長房), 외동헌(外東軒), 군기고(軍器庫), 공고(工庫), 환미고(還米庫), 수미고(需米庫=天地庫, 玄黃庫, 大同庫, 賑恤

▼ 형방청 복원후 모습



현으로 존재하여 홍주군(洪州郡)과 결성군(結城郡)이 합치기까지 큰 읍지(邑址)로 현재의 읍성(邑城)내 관아(官衙)지에 수많은 관청(官廳)들이 즉 객사(客舍)인 결성관(潔城館) 41간을 비롯하여 동헌(東軒=望日軒)과 내아(內衙=平近堂), 형방청(刑房廳=刑將廳), 향청(鄉廳), 작청



▲ 복원 설계도면

庫), 빙심헌(氷心軒), 읍신당(邑神堂), 사직단(社稷壇), 성동문(城東門=振衣樓진의루=賓日樓빈일루) 또한 향교(鄉校=大成殿, 明倫堂, 祭器庫, 東齋室, 西齋室, 內三門, 紅箭門等) 해창고(海倉庫), 육진군기고(陸陣軍器庫)와 화약고(火藥庫), 수진군기고집물고(水陣軍

○ 저자약력: 황 성 창(黃性昌) ○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회 충남지회 부회장
- 결성문화재보호회 부회장

- 결성가축인공수정소 대표
- 홍주향토문화연구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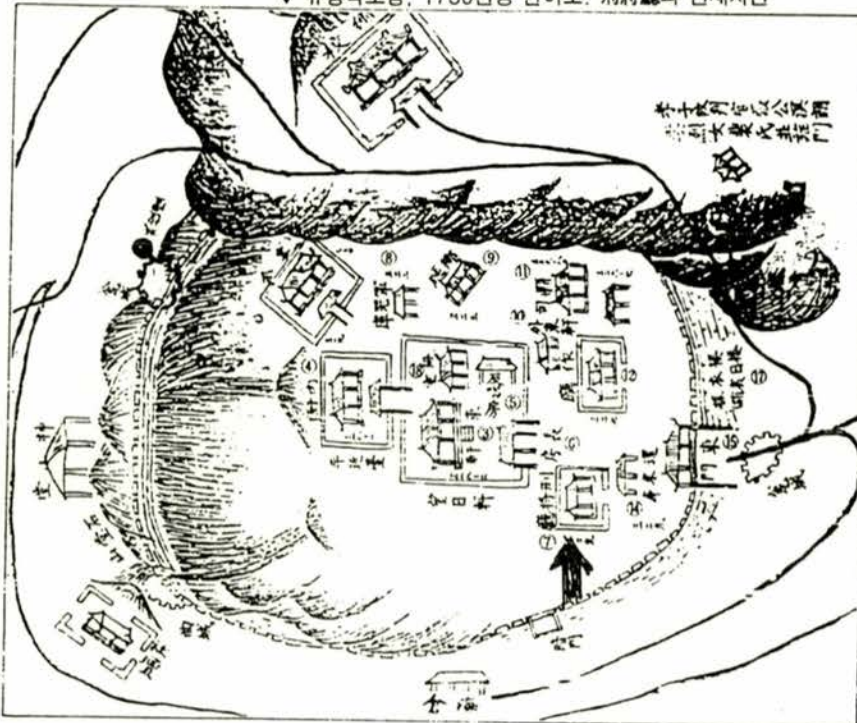
器庫什物庫) 등의 관가(官家)들이 즐비하였다.

그동안 고려(高麗) 때부터 이조때에 극심했던 왜구(倭寇)의 침략과 8.15해방, 6.25동란등 수차례의 변혁을 거쳐 많은 관청건물들을 폐군시부터 점차 왜인들이 훼손하여 왔다. 현재 보존청사로는 결성면사무소로 사용한 동헌(東軒= 望日軒과 冊室), 그리고 경찰관지서로 최종사용했던 텅빈 청사인 형방청(刑房廳)등 3동이 지난 1989년 4월 20일 충남도문화재 306호로 지정되어 현재 원형복원중이다. 그간 결성지역문화재보호회(結城地域文化財保護會: 會長 金淸圭)와 뜻있는 주민들의 보존요청으로 문화재 관리국의 많은 관계 공무원들과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수차례 조사하여 왔으며 보존가치가 있다 또는 가치가 없다는 등 지나다가 지난번 전문위원 허선도(許善道) 국민대 교수와 윤무병(尹武炳)교수는 이같이 지방의 형방청(刑房廳)청사로 사용한 건물이 국내 유일(國內唯一)한 청사건물로 높이 평가하는 등 국가지정 문화재로 특별히 잘 보존해야 된다고 강조한바도 있다.

이 지역의 문화재를 애호하는 많은 주민들은 이러한 훌륭한 보물을 가진 궁지와 자부심에 기쁨을 금치 못하고 이고장의 큰 자랑거리로 등장된 현재의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런데 지난 91년 9월 20일 본청사 복원공사중에 발견된 지난번의 중건상량문(重建上樑 告祀文) 일부중에 승정기원후 5병신 3월 25일 진시 립주 상량경과갑향(崇禎紀元後 五丙申 三月 二十五日 辰時 豎柱 上樑庚坐甲向)등에 읍무후 글공부와 각종 서류정리, 예절등의 관리들 수양처로 풀이하어 결성동헌내 현사(結城東軒內 縣司)라고 부당한 명칭 정정안(訂正案)주장에 대하여 비교되는 이론과 고증 자료를 정리하고자 한다.

본 청사는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329번지에 고래식(古來式, 蓋瓦층) ㄱ자형 건물로 건평 24평방의 본관(부속사= 행랑채 3간은 1982년 신축청사로 이전시 노후하여 철거) 1동만 현존한다. 본 청 중건(重建)당시는 고종 32년 홍주부(洪州府)의 예속군시의 다음해로 또한 부(府)가 폐지되고 결성군으로 승격된 많은 변화기의 건축물로 현사(縣司)가 아니고 작청

▼ 규장각소장, 1730년경 판아도, 刑將廳과 현재지반



1. 결성관(深城館)
2. 공고(工庫)
3. 동헌(東軒)
4. 내아(內衙)
5. 금창방(及唱房)
6. 장방(長房)
7. 형방청(刑房廳)
8. 군기고(軍器庫)
9. 향청(鄉廳)
10. 외동헌(外東軒)
11. 현사(縣司)
12. 작청(作廳)
13. 수미고(需米庫)
14. 환미고(還米庫)
15. 동문(東門)
16. 빈일루(賓日樓)
17. 진의루(振衣樓)
18. 책실(冊室)

(作廳)이란 관청의 사용목적 청사인것 같 이 판단한다. 그후에 형방청 청사로 사용 하였음을 증명되는 고증과 기록이 허다하 여 소개한다.

★고증(考證)자료(資料)와 기록(記錄)

1) 홍성경찰서 결성지서 연혁편.



▲ 경찰변혁중 巡檢廳

이조시대 형방청이라 칭하여 오든바 1910년 8월 한일합방당시 순검청(巡檢廳)으로 개칭사용하고, 1915년 3월1일 경찰관 주재소로 개칭후 8.15해방과 더불어 결성지서 청사로 사용하다가 1982년 9월 25일 구청사 노후로 결성읍내리 379번지 신축건물로 이전하였다. (경찰지서 연혁)

(1) 결성지서 연혁

○ 1910. 8

홍성경찰서 결성지서는 이조시대 형방청이라 칭하여 왔고, 한일합방과 동시 순검청으로 발족

○ 1915. 3. 1

일제시 홍성경찰서 경찰관 주재소로 개칭

○ 1945. 8. 15

해방과 동시 홍성경찰서 결성지서로 개칭

○ 1982. 9. 25

구청사의 노후로 결성면 읍내리 379-3번지에 청사 신축 입주하여 현재에 지함.

(2) 1982. 9월 청사신축 당시 대지 229평, 건평 60.2평을 공사비 3,950만원을 들여 신축하였음.

(3) 정원 및 현원

○ 홍성경찰서 결성지서는 정원 경찰관 6명(지서장포함)이나 현재는 경찰관 5명(지서장포함)이 근무하고 있음.

2) 고려 흥무8년(1375) 결성면 원금곡에 위치했던 신금성지가 폐쇄되고 1413년 읍내리로 이전 현위치에 현감하여 포도청 자리로 전래, 그후 1736년 복원됨. (古韓屋 建物 明細台帳)

3) 작청(作廳) = 現以警察官 駐在所充用(현이경찰관 주재소충용)

4) 현사(縣司) = 大正六年(1917) 八月 賣却于 中山清一郎. (대정6년 8월 매각우 중산청일랑), 戶長所居(호장소거), 朝鮮瓦葺 十二坪 七合三作 (조선와즙 12평

古蹟屋史物明細 (古蹟屋史物明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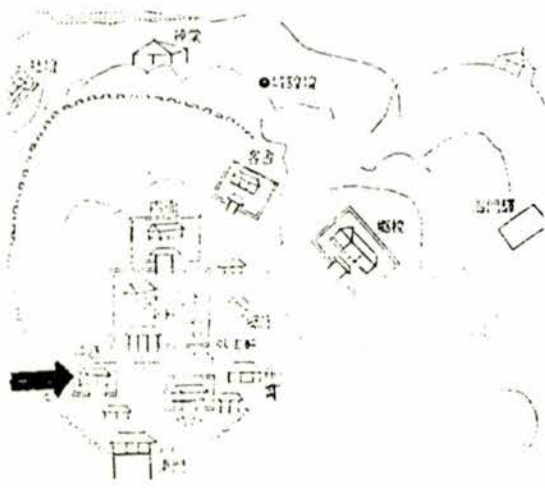
古蹟屋名	坐落	建築年次	會同 司道文 籍主	現 用 途	保存狀態	古蹟屋 面積	古蹟屋 面積	古蹟屋 面積
...
...
...
...
...

▲ 고한옥 건물명세서의 포도청(捕盜廳)



▲ 홍성군지의 작廳(作廳)과 현사(縣司) 1924년작

- 5) 본청사 건물 실건평수 24평반 (복원공사 대표증명)
- 6) 1730년대의 결성현지도(結城縣地圖)와 1780년경 관아도(官衙圖)에 형장청(刑將廳) 명시



▲ 結城邑圖(1790년) 刑將廳

- 7) 결성의 각읍지(各邑誌)에 객사직(客舍直) 또는 향교직(鄕校直)인데 본청은 현사직이 아니고 청직(廳直) 박봉손(朴奉孫) 上梁文記.

孫) 上梁文記 .

8) 현사(縣司) 위치는 본 읍 326번지내에 현재 은행나무 밑에 향청재 바로 옆에 위치한 관아도와 동일하다. (東門中心)

9) 배동순(裴東順)會長의 충청도 24개 관아도(官衙)의 형방청 조사 결과 각군현 등에 다수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바도 있다. 또한 洪州鄕土文化研究會員 다수가 형방청(刑房廳)명칭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10) 신정4등군(新定四等郡) 관직(官職), 군수(郡守) 一員, 향장 一人, 순교(巡校) 四人, 수서기(首書記) 六人, 통인(通人) 二人, 사령(使令) 六名등 순위기록. (1879, 建陽 二年 結城邑誌)

五合 官舍	三合 官舍	二合 官舍	一合 官舍	三合 官舍	二合 官舍	一合 官舍	三合 官舍	二合 官舍	一合 官舍
三合 官舍	二合 官舍	一合 官舍	三合 官舍	二合 官舍	一合 官舍	三合 官舍	二合 官舍	一合 官舍	三合 官舍
二合 官舍	一合 官舍	三合 官舍	二合 官舍	一合 官舍	三合 官舍	二合 官舍	一合 官舍	三合 官舍	二合 官舍

▲ 판직면에 순교(巡校)가 향장(鄕長)다음 순위

11) 冬至正朝 各廳上下米條에 獄房廳(옥방청)명시明示(결성읍지 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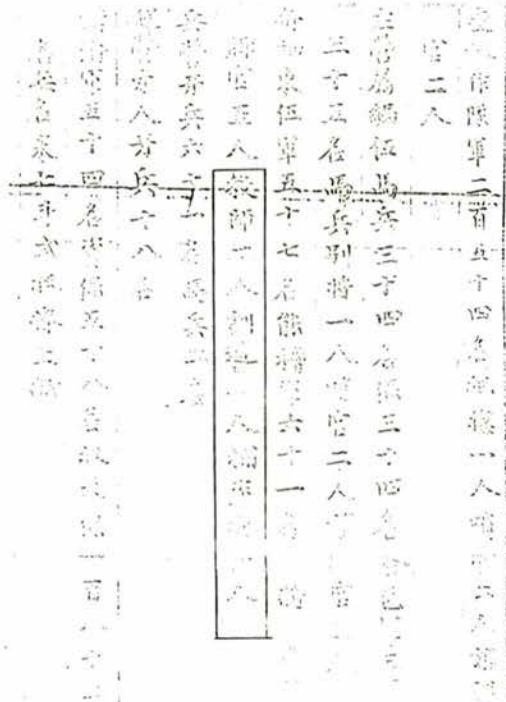
▼ 중앙도서관 소장, 결성읍지 冬至正朝 各廳上下米條 獄房廳(옥방)

五斗	四斗	三斗	二斗	一斗	五斗	四斗	三斗	二斗	一斗
三斗	二斗	一斗	五斗	四斗	三斗	二斗	一斗	五斗	四斗
四斗	三斗	二斗	一斗	五斗	四斗	三斗	二斗	一斗	五斗

12) 邑誌 官衙條에 捕盜官(포도관) 二人 明示(1817, 읍지 純祖 十七年作)

13) 서해안의 요충지로 한때는 진성(鎭城)를 두고 읍민을 정착하게 했다는 기록과 항상 군선(軍船) 즉 防船(방선), 兵船(병선), 伺侯船(사후선)이 각각 1척씩 배치되어 있었고, 지방군이 2,229명이 상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다. (結城邑誌, 國史大辭典, 大東地志 參考)

▼ 순조 十七年 結城읍지에 敎師, 訓導 다음 捕盜官(포도관)



14) 結城東軒 上樑文(중)에 縣監(현감) 座首(좌수), 別監(별감) 다음에 육방(六房 = 刑房色 朴○○ 明示, 康熙四年 乙巳 <1665>) 移建동

15) ① 호장(戶長) = 좌수(座首), 향장(鄉長)의 별호 ② 향장(鄉長) = 이조말엽 각고을 아전의 맨윗자리 ③ 작청(作廳) = 아전이 집무하던 처소, 길청(국어대사전)

16) 군(郡) 에는 형방(刑房)을 두어 형전(刑典)을 전임할 필요없다라는 이론은 이해할수 없으며, 각 고을에는 육방(六房 = 吏, 戶, 禮, 兵, 刑, 工房)이 각각 존재하여 업무분장이 당연한데, 때로는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감안하여 형방이 절대

적으로 중요할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홍주는 1895년 5월 지방관계를 개정 전국을 23부(府) 331개군을 두게되어 洪州府가 되었다가 다음해인 1896년 8월 전국을 13도로 개편하여 부가폐지됨과 동시에 結城군과 홍주군은 동격(同格)의 郡으로 지속하다가 1914년 2개의 군이 합치게 되었다. 그런데 結城군의 刑房(형방)업무를 홍주군에서 관장했다는 말인가? 각 고을의 크고 작은 문화재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나 관리들이 합부로 판단하여 빛을 못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처지 이건만,

읍지등 기록에 의하면 어느때는 형방(刑房)이 중시되었고, 또는 무시된적도 있었다고 본다. 그럼으로 상기와 같은 예를 종합해봐도 현사(縣司)란 위치나 건평이 전연 불가하며 일본인 중산청일랑이 매수하여 사택으로 사용후 왜정시에 철거했다. 그 없어진 현사를 주장할수도 절대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경찰연혁중에 형방청(刑房廳) 기록을 수차 얘기중에 현방청(縣放廳), 또는 헌방청(憲房廳), 현감청등으로 오기(誤記)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형방청 이외의 명칭을 인정할수도 없고, 형을 현, 헌 또는 형방을 현감등으로 착오를 인정할수도, 또 1,800여년경에는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형방청과 장청(將廳)을 합쳐서 형장청(刑將廳)이라 한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당시는 형방청(刑房廳)이나 장청(將廳)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형장청(刑獎廳)만 분명하다.

그럼으로 본청의 명칭은 본래 結城 형방청(刑房廳) 형청(刑廳), 포도청(捕盜廳), 옥방청(獄房廳), 형옥청(形獄廳), 형장청(刑將廳) 한말에는 순검청(巡檢廳)등으로 명칭이 전하여 왔다. 이상과 같은 고증과 기록등 사실을 살펴본 결과 현사(縣司)란 절대아니고 형방청(刑房廳)이 분명함을 거듭 증명해 둔다.

1993. 3. 10.



향토사 정보

편 집 실

★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홍성군은 지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결성면 금곡리 신금성지에서 발굴한 매장문화재를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매장문화재 출토품은 총 19건, 21점인데 백제시대 것으로 삼발형 토기 등 5점,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주름무늬 소병 7점, 또한 고려시대 청자대접 등 2점이 있으며 시대미상의 것으로 철촉 등 7점이 있다. …… (홍주소식 10월호)

★ 백야장군 생가지 청소

상촌리 갈산노인회(회장 박정규·73) 회원 60여명은 매월 5일 김좌진 생가지를 청소하며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있어 귀감이 됨. …… (주간홍성 10/26)

★ 홍주문화제 실시

제8회 홍주문화제는 군내 27개 민간단체와 학교가 참여 각종 전시회와 강연회, 민속놀이대회 등 34종목에 걸쳐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돼 군민들의 흥을 돋구었다. …… (주간홍성 10/5)

★ 제8회 홍주문화제 개최

홍주권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주민 단합의 계기로 열린 제8회 홍주문화제가 9월 30일과 10월 1일사이 홍성읍 일원에서 34종목의 각종 전시 및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 (홍주소식 9월호)

★ 전국 한 곳 주자영정 모시는 창주사 문화재로 지정돼야

홍동면 운월리 창정에 소재 주자 영정을 모시고 매년 봄과 가을에 제향을 올리는 창주사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 (주간홍성 10/12)

★ 더 수준 높은 행사 개발 필요

제8회 홍주문화제 총평에서 홍주권 전통문화를 재현,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문화제다운 문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수준높은 문화예술 행사가 보완. …(주간홍성 10/12)

★ 풍물 경연대회 심사평

홍주문화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 전통문화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 준 풍물경연대회, 전통문화 살아 있다는 증거. …… (주간홍성 10/12)

★ 광복회 백야 생가 방문

광복회(회장·김승곤) 회원 1백여명은 홍성을 방문하여 백야 김좌진장군 생가를 비롯 만해 한용운선생 동상, 홍주산성, 조양문, 홍주의사충, 김복한선생 묘소 등 군내 유적지를 답사했다.(홍주소식 10월호)

★ 한국묘현동지회 김좌진생가 방문

한국묘현동지회(회장·김동현)회원 45명은 지난 10월 20일 김좌진 생가를 비롯하여 양곡사, 추양사, 한용운선생 동상 등 유적지를 방문했다.

★ 문화재 관람객 수준미달

충절의 고장 홍성에는 도지정문화재 12. 문화재 자료 14개소 등이 있으나, 훼손이 심해 당국의 관리와 주인의 보호의식 부족. (주간홍성 10/19)

★ 결성면지 발간 착수

결성면지 발간위원회(위원장·송계수)가 지난달 13일 구성돼 올해 연말까지 완성을 목표로 활동중이다.(주간홍성 11/2)

★ 홍동면지 발간위도 출범

홍동면은 면지발간 편찬위원회를 결성하고, 자료조사에 들어갔다. (주간홍성 11/2)

★ 백야장군의 달, 행사장 순례

홍성군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백야 김좌진장군의 달 행사장 순례단이 지난 10월 30일 백야장군 생가 갈사면 주민대표, 홍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등 50여명이 독립기념관 유관순 기념관 등을 순례하였다. (홍주소식 11월호)

★ 홍주향토박물관을 각 방송국에서 취재

12월 향토문화연구회 월례회 시에 박물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므로써 주간홍성 및 MBC대전방송국에서 취재 방송되었고, 1월에 다시 대전MBC와 대전KBS방송에서 허규회원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되었다.

★ 백야장군 동상-홍주고 도로개설

홍성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김좌진 동상부터 홍주고까지 폭 20m에 길이 1,280m로서 이것이 개설되면 도시의 균형발전과 함께 교통체증 현상 해결

★ 향토사가 지도급인사 대거 참여, 주민협조 당부(결성, 홍동면지)

면지발행은 평생을 지역에 살면서 꾸준

한 연구를 해온 향토사가들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온 면내 지도인사들과 과거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상세한 구술 등이 필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뒷받침 필요 (주간홍성 11/9)

★ 노은리 전통가옥 문화재지정 필요

홍북면 노은리 29번지에 있는 한옥와가, 육간대청이 원형대로 남아 있다. 건축양식 독특. 지은 연대 미상, 관리허술로 보존 시급. (주간홍성 11/16)

★ 백제시대 토기 원형 4점 발견

면소재지 석당산에서 지난 7일 백제시대 토기 4점이 원형 그대로 발견 (주간홍성 11/23)

★ 홍주의사총 성역화 80%진척

홍주의사총 성역화 작업이 역사적 소명감 갖고 마무리중 (주간홍성 11/23)

★ 결성농요 문화방송서 채록

문화방송이 지난 12월 1일 모시고 논밭 때 부르던 결성지역 농요를 시작으로 충남 홍성편 민요 채록에 들어갔다. (홍주소식 12월호)

★ 안회당뒤 군민 휴식공간으로

군은 지난 11월 30일 군청 안회당 뒷편에 조경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이곳을 군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주간홍성 12월7일)

★ 만해 청소년문학상 기금마련을 위한 시서화전 열려

홍주문학회(회장·김용신)의 만해 청소년문학상 기금마련을 위한 시서화전이 지난 12월 12일부터 10일간 홍성문화원 전실에서 열렸다. (홍주소식 12월호)



萬傾賦

孤松 田 玉 鎮

■ 乾坤相冲形四象 天尊地卑 貴賤別
 양(乾)과 음(坤)이 상합하여 만물의 조화 이루어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귀하고 천한 것이 이미 정해졌건만

■ 仁義忠孝何處尋 潤屋鍾磬隨富懸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인의(仁義)와 충효(忠孝)는 찾으려 하지 않고 부자집 지붕구연의 종경(鍾磬)만 부러워하네

■ 狗防夜盜草茅宿 鷄鳴守寅追雜鬼
 개는 밤도둑을 지키면서도 풀짚덤이에서 밤을 세우고 닭은 새벽까지 잠귀신을 쫓아 주어 말은 임무 다하고

■ 耕牛終役殺身仁 猫無捕鼠寢主室
 평생을 멍에 매어 논·밭 갈고 늙어서 골육까지 사람에게 바치건만 쥐하나 잡지 못한 고양이는 따뜻한 주인 안방에서 잠만 자고 있네

■ 雉探何官雙鬢玉 堯舜禹湯讓權履
 꿩(장끼꿩)은 무슨 벼슬이 탐나기에 양쪽 구렛나루에 옥관주까지 달고 아양떠는가
 요임금·순임금·우임금·탕임금은 임금벼슬도 신작같이 물려주었다네

■ 驚欲太多全身金 白鶴單足江中笑
 피꼬리는 사치가 너무 심하여 온몸을 금으로 두르고 다니는데 백로는 강물속에 한쪽 다리 들고 비웃고 있고

■ 高柳環枝連表地 萬表省氣怨吟漏
 의기양양한 버드나무 긴 가지 그늘에 가려진 푸른 새싹들 햇빛 못보는 설움으로 윈망스런 눈물만 흘리고 있다

■ 蓮根水中獨自發 黑鳥願白琢青實
 험난한 진흙속에 간신히 피어오르는 연꽃 열매를 검은 새들이 흰 새되고서 연(靑實) 쪼아대니 연꽃마저 망쳐 놓고

■ 笠桶虧顏憂損穀 焦群作伍攻枯木
 삿갓 쓴 허수아비 일그러진 일갈로 곡식의 손해를 걱정하건만 참새들은 떼를 지어 죽은 나무만 쫓고 있으니

■ 霧覆林頭連重白 杜門七二弔忠魂
 연일피는 안개로 나무마다 이슬만 맺혀 있으니 두문동에서 충절을 다한 七十二忠臣들의 영혼은 나라위한 영혼들에 조상만하고 있네

운하와 정원의 도시-소주와 무석

허 규

빗방울이 차창에 방울지는 흐릿한 날씨다. 상해의 아침거리는 출근하는 인파와 자전거로 교통체증이 이뤄진다. 행길주위에 늘어서 있는 노점상에는 뜨끈뜨끈한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그속에서 입김을 불어가며 아침요기를 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정겹다.

일행도 한무리가 되어 볏은 만두와 쌀 샌드위치등 두유에 파배기, 꿀, 바나나등을 사들고 버스안에서 요기를 한다.

無錫(무석): "주석이 없는 곳"이란 의미로써 한때는 대량의 주석광산이 발견되었던 탓에 붙여진 이름이다. 춘추시대때 오나라 땅으로써 명검이 나는 곳으로 유명하였다. 태호가 있고, 서시와 범려의 로맨스가 있으며, 와신상담의 고사로 역사의 한장을 수놓았던 현장을 찾아 차선도 없는 털털이 도로를 '비가오면 더욱더 좋다.'던 서시의 심정을 헤아리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려본다. 춘추시대 제후들의 패권 다툼에 중원의 남쪽변방에 있는 오나라와 월나라가 등장하는 이유는 합금술의 발달로 명검을 양산할 수 있었던 군사적인 유리함도 있겠지만, 그 역사를 창출해낸 군웅들의 출현에 있을 것이다.

오왕의 합려는 오자서라는 명재상을 만나 나라를 일으켰고, 월왕 구천은 범려를 얻어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월나라와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은 오왕 합려는 태자 부차에게 아비의 원수는 구천임을 확

인시킨후 세상을 뜨니, 부차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야 되겠다는 다짐하에 밤마다 쉼(薪)위에서 고통을 감내하니 이것이 와 쉼(臥薪)이요, 월왕 구천이 부차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은 오왕 부차의 신하가 되고 아내는 오왕의 첩이 되겠다는 굴욕적인 항복을 당하므로써 쓴 쓸개를 곁에 놓아두고, 음식을 먹을때마다 쓸개를 맛보면서, 자신을 격려하니 상담(嘗膽)이다. 또한 오왕의 경계심을 늦추고자 월나라의 미녀 서시(西施)를 오왕에게 받쳐 그의 환심을 사며 설욕의 날을 갈고 닦는 구천의 등뒤에는 주군을 위해 자신의 애인을 내 놓아야 했던 범려의 뜨거운 눈물이 숨겨져 있었으니, 후인들은 태호의 호반에 서시와 범려의 로맨스가 있었던 장소에 려원을 만들어 역사의 현장을 기린다.

중국의 미녀는 소주에 있고, 아름다운 정원의 기암괴석은 태호석이라 한다. 서시의 슬픔은 안개와 같이 일행들의 발길 앞에 비에 젖어 수채화같은 태호의 전경을 선사한다.

봄기운을 타고 푸릇푸릇 돌아난 능수버들은 여인의 비단자락같이 부드럽고, 끝없이 펼쳐진 호수의 장쾌함은 대장부의 가슴이던가! 보슬비만 하염없다.

문학자이면서 중국 고대 사가인 곽말약(1892~1978)이 '太湖佳絕處, 畢景在鼈頭'라고 칭찬했듯이 태호에 돌출한 반도를 그 모양이 자라의 머리와 비슷하다는

데서 별두저라 했고, 무석에서는 가장 산수가 좋은 곳이다. 호숫가를 따라 가다가 다리를 건너 입구에 들어서자 식사를 하고 가라고 길을 막으면서 버스를 세우고 버스문을 잠으면서 아우성이다. 중국의 개인상업은 필사적이라 할 수 있다. 일행은 그들을 뿌리치고 공원내에 제일 큰 국영식당에 들어갔는데 오던지 말던지, 먹던지 말던지, 엽차도 따라주지 않는 것이 개인식당과는 하늘과 땅이다.

수학여행은 학생들의 무질서와 시끄러

채의 정자가 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산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축산을 나서니 장랑(長廊)이 나타나는데 한쪽은 태호의 수평선이 보이고, 한쪽은 보기 좋게 정자가 보인다. 장랑의 벽면에는 여러 종류의 꽃모양으로 창문을 만들었고, 사이사이엔 역대 서가들의 명품들을 각(刻)하여 진열하였는데 조맹부, 미불, 왕문치등의 행초서는 태호와 어울린 괴석의 미로와 같이 풍류의 절정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 장랑의 벽면에 새겨있는 명가의 진적

움을 뚫고, 오솔길을 따라 가보니, 커다란 태호석이 길을 막는다. 구멍이 여러개 뚫려 있으며 구슬과 같이 맑게 비치는 색조가 있는 돌인데, 이곳 태호에서만 나는 진귀한 돌이다. 정원 축산(築山)에 불가결한 것으로 수나라의 양제(煬帝)는 이 돌을 나르기 위해서 대운하를 파게 했다. 공원앞에는 선착장이 있고, 태호를 유람시키는 페리호가 출발하는데 일행은 시간관계로 태호유람을 포기하고, 보계교(寶界橋)를 건너서 려원에 하차한다.

대문을 들어서니 태호석으로 축산(築山)을 무리지어 만들어 놓고, 축산마다 몇

애인의 원수도 갚았고, 주군에게 패업을 장악케한 주인공 범려는 나중에 제나라로 망명을 하게되는데, 그의 심중에 비취진 세상사는 아마도 역사속에 꿈처럼 나타났다가 꿈처럼 사라진 수수께끼같은 나라 - 월나라와도 같았을 것이다. 뒤돌아서서 일행의 뒤안길에도 태호는 여전히 봄비에 젖어 꿈같이 숨겨진 많은 일화를 잠재워 주듯 아쉬움을 더해준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중의협회 사람들을 만나 중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일행은 역사속의 중국과 현재의 중국을 넘나들며, 여정의 피로를 이겨낸다.

4월 5일 아침.

돌아가신 아버지를 꿈속에서 뵙고 벌떡 일어나 집소식이 궁금하여 전화를 해보지만, 혼선이거나 번호가 없다는등 통화를 이룰수가 없다. 전화사정이 아무래도 여의치 못하리라 체념하고 운하와 명원의 도시 소주로 향한다.

상해거리를 헤집고 한여사 할머니네집에 들러서 저녁식사를 부탁하며, 갖고 온 반찬(고추장, 파김치, 총각김치등)을 맡기고 외곽으로 나온다. 한여사는 6년전 이 도시를 벗어날때를 회상하며, 그때 - 양복을 맞추려면 허가를 득해서 3개월이 걸려서야 입을수 있었고, 한 달 월급은 100원인데 양복값은 300원이었다면서- 자신도 지금 이곳에 있었다면 어찌되었을까를 회상하며 하느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곳 사정이 좀 나아졌다며 깔깔거리다.

소주로 가는 도로는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공사한지 2년이 되었는데도 여직 30%의 공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 길을 사용하는 댓가로 통행료 30원을 받는다고하니 어이가 없다. 우회도로도 있는데 이곳으로만 통행시키는 이유는 도로포장하는데 차들이 다니면 길이 다져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곳으로만 운행시키니, 차는 거북이 걸음으로 텅텅거리고 때때로 미친말이 기승을 부리듯 마구 흔들어댄다. 이것도 재미라 깔깔거리는데 운전수 왈,

“우리사람 그래도 이길을 포장할수 있어해! 사람 많으니까 사람을 이동시켜 만들면 돼”

도로포장도 인해전술이던가!

이래저래 소주에 가까우니 중국에선 제일 부드럽다는 소주말은 흐느끼는듯 맑고, 또렷함이 미인의 속삭이는 숨소리 같아 일행을 설레이게 한다. 12시반 졸정원 근처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개인식당에 앉아 요리를 시킨다. 개인식당이라 성의껏

하는데 그래도 더럽고, 시끄럽고, 젓가락을 놓을 만한 식탁은 못된다. 음식도 마구잡이. 일행은 요리는 제쳐두고 마늘짬아치를 사오게 해서 청탕(淸湯)과 쌀밥에 함께 먹으니 그런데로 먹을 수 있다.

현재 건물 일부를 소주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졸정원은 중국소설 홍루몽의 무대가 되는 대관원(大觀園)으로써 명대의 유명한 서화가 문징명이 원내의 옥란당(玉蘭堂)에서 서화를 그리며 오파라는 화맥을 이루어 놓으니, 정원의 완숙한 조화도 세인을 감동케하지만 그속에서 피어난 문화의 향기는 후인을 더욱더 감격케 한다. 누각마다 걸려 있는 편액과 대련에도 문징명을 비롯 오대치, 정판교, 옹방강 등 역대 서화가의 진적을 각(刻)해 놓았는데, 정원의 기암괴석과 화초들 사이에서 꽃이 되어 나그네의 눈을 현란케 한다.

졸정원 가까이에 사자림이 있는데 이곳의 랑벽(廊壁)에도 송(宋) 4대가(四大家)인 소식, 황정견, 미불, 채양의 매화시를 석각하여 진열하였다. 서화에 뜻을 두고 있는 필자의 발걸음은 일행들에 뒤쳐져서 읽어보고, 만져보며 도원십팔경(桃源十八景)이란 원내의 미로속으로 사라지는 일행의 그림자를 뒤쫓느라 바쁘다.

월왕구천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 죽은 오왕 합려는 해용산(海湧山)에 장사 지내졌는데 지금의 소주 교외의 호구(虎丘)가 바로 그곳이다. 당시 10만의 인부를 동원하여 만든 무덤으로 담을 세겹으로 쌓고 무덤안에 3천자루의 칼을 묻고, 수은으로 연못을 만들었으며, 금·은·주옥으로 물새를 만들어 그 연못에 띄웠다는 전설이 있다. 그로부터 270년후 진(秦)의 시황제가 그 명검에 호기심을 갖고 오왕 합려의 무덤을 발굴하였으나, 발굴도중 맹호가 나타나 발굴작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부득이 중지한 일이 있었다. 그후 이 해용산은 호구라 불리었고, 도굴 공사로 인하여 생

긴 큰 구덩이에는 물이 괴어 연못이 되니 사람들은 이 연못은 검지(劍池)라고 이름 지었다.

이 검지앞에 커다란 바위가 막고 있는데 천명이 올라설 수 있어서 '千人石'이라 하며, 천인석 끝에 호구검지-“虎丘劍池”라는 빨간글씨가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서도의 대가 안진경(709~785)의 글씨다.

▼ 안진경이 쓴 호구검지



안근유골(顔筋柳骨)이라고 “안진경의 글씨에는 힘줄이 있고, 유공근의 글씨에는 뼈가 있다.”는 뜻으로 초당(初唐)이후 성당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의 기둥이라 할수 있는 평원태수 안진경의 서풍은 그의 솔직 호방한 성격을 나타내 주듯이 힘이 넘치고 꾸밈이 없으며, 그위에 엄격함마저 느끼게 하여 성당시대의 웅장성을 보여준다.

호구검지는 가히 호랑이 이빨에 보검의 서리발과 같은 장군의 도도한 기백을 보는듯 의연히 검지를 지키고 있다. 검지 위 쪽에는 7층 8각의 벽돌로 쌓은 호구탑(虎丘塔)이 서있는데 피사의 사탑과 같이 무

너질듯 15도로 기울어져 있다. 그곳에서 내려다 보는 소주의 거리는 평온한 고도로써 석탄냄새가 진하게 나는 약간은 우중충한 빛바랜 기와와 함께 오랜 역사를 느끼게 한다.

일행은 소주 교외에 위치한 한산사를 향하며 수로사이로 펼쳐진 전원풍경과 봄기운을 타고 내려오는 따스한 햇빛으로 이국의 정취를 물씬 풍기게 하는 한편의 시네마를 본다.

육조시대때 창건한 한산사는 처음 이름은 묘리진명탑원(妙利晉名塔完)으로 당나라 정관(貞觀)연간에 두사람의 기인, 한산(寒山)과 습득(拾得)이 살았다는 데서 점차 한산사라 하게 되었으며 당대의 시인 장계(長繼)가 지은 한시의 명작 「풍교야박」(楓橋夜泊)은 한산사를 중국 내외에 널리 알리게 된다. 산문 앞에는 아름다운 돌로 담을 쌓은 셋강이 흐르고, 풍교라 불려지는 돌다리가 놓여져 있고, 예전에 한산사를 방문할때 이용된 선착장도 남아있다.

청시대에 건립된 한산당에는 만(卍)자 무늬를 성기게 만들어 놓은 큰 불단위에 수려한 한산습득상이 있다.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 흰벽과 아름다운 육각형의 종루가 보이는 경내는 목탁소리의 청아함과 어울려 그윽한 향내를 풍기고 있었다. 경내의 여기저기에는 시인 묵객들의 흔적을 시나 글로 남겨 석비에 새겨서 시공을 넘어서 일행과 해후한다.

장계의 명작 「풍교야박」은 청대에 유월(1821~1906)이 쓴 글씨며 한산습득의 비 역시 청시대에 풍간(豐干)법사가 새긴 것인데, 출입구 옆에 위치한 기념품점에서 탁본을 떠서 팔고 있었다. 구하고자 했던 탁본을 사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소주시내 구경을 하려고 일행은 다시 고색

창연한 구 도로를 찾는다.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자전거때에 떠밀려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다가 일행은 묘원앞에 발길을 멈췄고, 늦게까지 개방하는 또 하나의 명원을 볼수 있게 된 기쁨에 서둘러 원내에 들어서니, 누각과 누각으로 이어지는 장랑(長廊)의 벽면에는 수백점의 석각들이 보이는데, 왕우군(王右軍)의 이왕첩(二王帖)과 저수량의 안탑성교서등 역대 서법가의 진적이 원내에 모두 모여 있었다. 시간에 쫓기는 여정속에 언뜻 언뜻

가는 구루마소리는 일행이 역사속에 쓰옥 들어가는, 적어도 50년전 쯤으로 들어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석양이 지는 수로 사이로 통통거리며 지나가는 또박선, 그 속에서 물을 퍼내는 여인네, 짐을 가득히 실어서 빠질것 같은 힘겨운 수로속의 선박들을 그림자 길게 늘어뜨리고 다리위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워보는 여행속의 정지된 시간 - 정지하고픈 시간을 접어두고 어둑해져서야 일행은 다리에서 내려와 귀가길을 서둔다.

▼ 광제교위에서 본 수로의 광경



보여주는 여인의 치마속 같은 문화유적의 진수를 - 그들을 만나는 시간은 번개속에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듯 환하게 나그네를 감전시킨다. 회열은 짧은 순간 - 기억속에 남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무섭게 빨리 카메라 샷타를 누른다.

어데 갔다 왔나, 쫓기듯 묘원을 벗어나 소주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수로의 정취를 제일 보기가 좋다는 신민교(新民橋)와 광제교(廣濟橋)를 찾아 인력거에 몸을 싣는다. 인력거를 타는 기분 - 출렁이듯 흘러

끝없는 수로로 이어지는 길옆에 이층집들이 그림같이 서있고, 그곳에서 비취지는 전기불은 수면에 비춰져서 인상파의 거장 모네의 그림과 같은 화면을 아지랭이 같이 드러내며 야경을 수놓는다. 그대로 꿈이던가 - 피로한 몸을 버스속에 버려두고 꿈속같은 소주의 여행은 계속된다. 소주 미녀도 만나고 누각에 걸터앉아 소홍주를 마시며 세월을 내동댕이친 무한한 꿈의 여행을 …….

다음호에 계속 ……

洪州義士塚聖域事業造成記

편 집 실

惡辣한 日本軍이 排日路線을 固守하시던 國母 明成皇后를 弑害하고 이에 斷髮令의 強行과 乙巳保護條約의 締結로 民心이 날로 恟恟해지자 이에 憤慨한 洪州고을 忠義烈士들이 忿然히 倡義蜂起하였으니 이는 朝鮮朝末 主權恢復을 先導한 抗日義兵戰의 始初였다

救國一念에서 죽기를 盟誓하고 赤手空拳으로 抗戰하였으나 一九〇六年 丙午陰四月九日 黎明의 衆寡不 適으로 殉義하오니 山川도 驚歎痛哭할 慘事였다 九百餘 義士公들의 屍身은 救國의 怨恨도 풀지 못한 채 散 격 위에 서린만 오가는 險谷에서 四〇餘年間 風霜雪寒에 暴露되었으니 眞實로 가슴을 외이는 痛恨이었다

民族이 있어도 疆土가 없었던 倭政때에는 散華한 先烈들의 遺骸를 修墓할 거를조차 없었다가 八·一五 光復을 맞아 散在한 荒예를 授尋하여 深坎合葬의 禮를 갖춘後 祠堂에 位牌를 奉安하고 九百義士塚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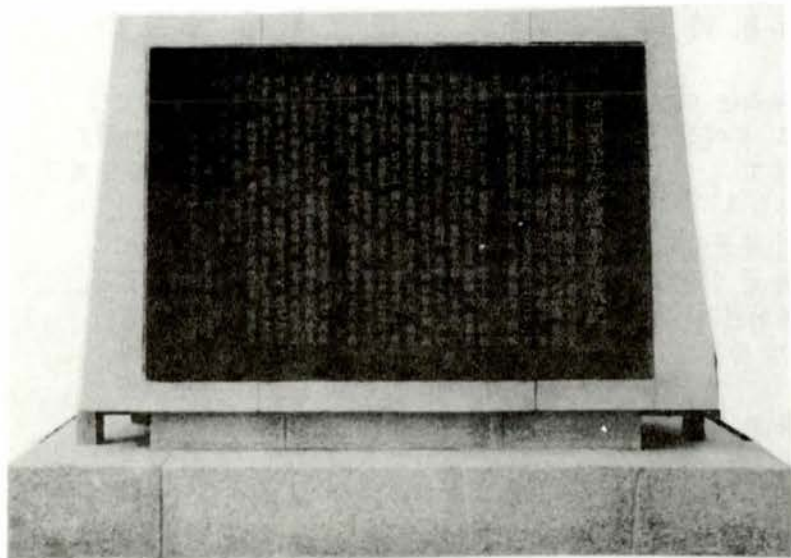
一九九一年 一二月 總三十七億원의 財源을 마련 萬餘坪의 敷地를 確保하고 墓域整備 祠堂補修 石物造成 三門新 築과 附屬工事까지 完成하여 말끔히 丹裝하고 이 聖域을 洪州義士塚이라 改稱하였다

이 歴史的인 事業은 殺身으로 護國한 英靈들의 넋을 永 遠히 哀悼하고 그 殉國精神을 繼承하므로써 萬世토록 護國 할 수 있는 忠節의 指標가 될 것이다

一九九二年 一二月 三〇日

洪 城 郡 守 李 商 善 謹 識

洪州郷土文化研究會員 金 世 煥 謹 書



오 세 산

편 집 실



「烏樓山吟」… (1) … 成 懣 基
 山 號 以 星 星 五 宜
 五 星 精 彩 畫 難 移
 西 南 郡 距 中 間 屹
 十 二 峯 回 次 第 奇
 內 院 寺 深 僧 禮 佛
 聖 堂 里 僻 士 歌 芝
 有 如 錦 繡 蔥 蔥 裡
 佳 景 不 同 隨 四 時

奇 勢 分 成 十 二 峯
 聖 禹 千 年 猶 有 跡
 太 皇 一 世 最 多 功
 今 來 古 往 相 傳 語
 隨 序 風 景 也 不 窮
 登 覽 名 山 愛 不 宜
 應 從 鰲 背 此 間 移
 自 生 公 益 藏 無 盡
 持 立 形 容 大 且 奇

산 이름은 별이라네 봉우리는 다섯
 빛나는 그 모습은 그림도 못따라
 고을은 서남쪽 중간에 솟고
 열두봉 차례차례 기이하고나
 내원사 법당에는 노승의 불공이 있고
 성당리 마을에는 선비의 글 읽는 소리
 화려한 금수강산은 이곳이런가
 철따라 다르구나 이 지방 풍경

울창한 높은 산은 하늘에 닿는듯
 꽃다운 기상이야 오악과 흡사하고
 빼어난 모양이 동남경계에 배열했고
 기묘한 형세는 12봉을 이루었도다.
 夏禹氏 천년고적이 아직 남았고
 하나님 當世功績이 가장 많도다.
 지금이야 우리인생 전하는 말에
 철따라 좋은 경치 무궁하다네
 이름난 산에 오르니 과연 좋구나
 자라등 타고 와서 옮겨 앉았네
 못사람 도움받을 보물도 많아
 유달리 장한 모습 아름답구나.

「烏樓山吟」… (2) … 李 東 九
 鬱 碧 嵯 峨 近 碧 空
 鍾 英 末 必 讓 衡 崇
 秀 形 排 立 東 南 界

오성산 수박구덩이 전설

육종학, 생명공학 등이 하루가 멀다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현대의 과학문명은 한우에 젖소새끼를 임신시켜 생산하고, 감자줄기에 도마토를 접목하여 뿌리에서는 감자가 열리고 줄기에는 도마토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은 새로운 사건도 아닌듯 당연한 추세로 받아드려지는 것이 요즘 세상의 영농법이고 보면 온실재배로 백설이만건곤한 깊은 겨울에도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등 과채류가 제철같이 생산되는시대에 살고있는 우리가 4백년전에 지금 전자계산기로도 따라 잡을 수 없는 초고속 속성재배법을 개발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수박농사 이야기를 한다면 또한 호기심이 생길것 같다.

광천읍 담산리 상담 산천리 앞산이고, 광천읍 용암리 돌개 뒷산에 해당되는 오서산의 락맥인 아차산을 '진동'이라고도 부른다. 이 진동에 웅기한 다섯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마지막 봉우리를 쿠쿠리봉이라고 한다. 이 봉우리의 남쪽편 자라목이 수리목고개인데, 이곳에서 남쪽으로 진동을 타고 가노라면 한고개 넘고 또 한고개 넘어 자라목진 곳을 수박구덩이라고 한다. 일명 '재연이골고개'라고도 한다.

이 아차산은 다섯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로 연결되어 남으로부터 북으로 뻗어있기로 그 이름을 진동이라고 한것 같다. 수박구덩이는 그 진동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 진동 산마루 능선 남쪽에서 북쪽으로 산길이 있는데, 옛날에는 나무꾼들이 다니기도 했지만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보령 청라지방에서 광천을 거쳐 홍주로 통하는 보행육도 기름길로 행인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 여름, 땀별이 사정없이 내려 쪼이던 때의 일인데 이곳에서 멀지 않은곳에 수박농사를 가꾼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는 이날도 수박을 한

짐 수확하여 짊어지고 재연이골 말냉이 보행길 노송정자밀에 갖다 놓고 오고가는 행인들에게 수박을 팔아서 짹짹한 재미를 보려던 참인데, 나무그늘에는 벌써 길손들이 여러명 더위도피하고 다리도 쉴 겸하여 모여 있었다. 이때 광천쪽에서 새파랗게 젊은 선비 한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오더니 노송정자그늘로 들어서며,

"아~ 덥다. 그 수박 참 시원하게 보인다. 한통 썩 빼개서 한쪽 먹었으면 더위가 당장 물러가고 갈증도 사라지겠다만 돈이 있어야 사 먹지"

라고 큰소리로 혼자말을 하더니

"수박장수! 수박 한 통 개평삼아 돈 받지 않고 줄수 없나?"

하고 넌지시 농을 건다. 수박장수는

"여보시오, 선비님. 그런 말씀하지마슈. 수박농사가 그리 수월한 줄 아슈. 피땀흘려 가꾼것을 수확하여 돈 좀 만져보려고 이 고생 감수하는데 투전판도 아닌데 개평을 달다니 말도 않돼요."

하고 나무란다. 그래도 이 선비 또 짓궂게 "개평이 앓될 바에는 외상으로 한통 주게나. 지금 노수가 떨어져서 하는 말일세."

농부는 이말을 듣고,

"내가 선비를 언제 보았다고 외상을 쥐. 실없는 양반 다 보겠네."

라며 투명스런 대꾸를 했다. 이때 젊은 선비는 '허허'하고 헛웃음을 하더니

"그사람 정말 사람 못 믿는군. 내가 외상 먹으면 후일 틀림없이 갚을터인데 이리도 인색할것인가! 그럼, 할수없지."

하고 체념한듯 하더니 그래도 장난끼는 사라지지 않고,

"개평도, 외상도 앓된다. 나는 수박을 먹고 싶고, 어떻게 한담. 수박씨 하나만 있으면 나도 농사지어 오늘같이 덥고, 갈증나는 날 수박을 마음껏 먹을텐데……"

하고 중얼거리니 수박장수는 그 선비의 가당치 않은 말에 매우 냉소적이며, 비웃는 말투로

“수박씨가 없어서요. 안타까울것 없소. 내 바지계 아래쪽에도 어제 받아 놓은 씨가 있고, 땅바닥에도 씨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 농사를 지어 보구려.” 말하자,

“바지계에 있다는 수박씨 두서너개만 나누어 주겠나”

칭하니, 수박장수 별꺼리낌없이 그거야 못하겠나며 바지계에서 수박씨 몇 알을 주어 선비에게 건네 주며

“수박은 지금 먹고 싶은데 이 씨앗으로 농사 지으면 명년 이때나 따 먹을것이니 지금의 갈증은 어떻게 해결한데요.”

라고 말하니 선비는

“글쎄, 그 말 듣고보니 그럴듯하네”

하며 농부로부터 수박씨를 건네 받고, 소나무에서 삭정이 한가지를 꺾더니, 손자비를 잡기 좋게 잘라 쥐고 그것으로 길바닥에 흙과 모래를 모여서 부릇을 만들더니, 농부로부터 건네받은 수박씨를 그 부릇에 꼽아 놓으니 순식간에 그 수박씨가 싹이나더니 떡잎이 갈라진다. 기적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사이에 두마디, 세마디 자라며 잎이 피고, 꽃이 피더니 나비와 벌이 찾아와서 노래하며 꿀을 따간다. 이어서 탱자만하게 맺었던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며 크기 시작한다. 수박장수나 정자나무밑에 쉬고 있던 길손들이 신기한 이 광경에 흘러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첫마디에 열렸던 수박이 벌써 축구공만큼 컸다.

선비는 손가락으로 톡톡 통겨보더니 ‘이놈이 먹을만큼 익었나보다’ 라고 중얼거리며 거침없이 꼭지를 따더니 허리춤에서 은장도를 꺼내 수박을 자르니 수박의 속이 진홍색으로 먹음직하게 완숙되어 있었다. 길손들은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환성을 올리고, 수박장수도 너무 황홀하여 뉘나간 사람처럼 바라만 보고있는데 선비는 여러쪽으로 갈라 놓은 수박을 길손들에게 나누어 주며 먹으라고 권한다. 또 한 통 따서 나누어 먹고, 또 따서 먹었는데 수박장수도 배가 부르도록 수박을 얻어

먹었다. 선비는 수박 몇 쪽을 먹더니 더위도 가시고, 갈증도 달랬으니 이제 가던 길 가야겠다고 좌중들과 작별인사하고 청라 쪽으로 훌훌히 떠나갔다. 정자나무밑에 남은 길손들이나 수박장수도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그냥 심취하여서 표표히 사라지는 선비의 뒷모습이 양보일때까지 바라보다가 수박장수가 겨우 정신을 차려 돌아보니 자기가 한짐 짊어놓은 지계에 수박이 하나도 없이 모두 없어진지라

“아이고매나, 내 수박! 어디로 갔어. 이제 나는 망했구나.”

하고 탄식하니 모든 길손들이 그때서야 수박장수의 수박이 모두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길손들이 수박 한두 통도 아니고 한짐의 수박이 모두 어디로 도망갔냐고 시끌댈댈 북새를 놓고, 갑론을박 끝에 얻어낸 결론은 먼저 떠난 선비가 농사지었다는 수박이 모두 지계에 있던 수박을 도술로 길바닥에 심었던 수박덩쿨로 옮겨 놓고, 우리가 얻어 먹은 수박이 모두 이 농부의 지계에 있던 것이었구나하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그렇지만 길손들이 수박값을 내놓을수도 없고, 양준다고 수박장수가 원망할 수도 없게 되었다. 분명한건 수박장수가 나는 망했다고 탄식하는 광경 뿐이다.

이런 와중에 수박장수 부인이 밥 광주리를 이고 와서 남편에게 식사를 권하며 하는 말이 젊은 선비 한분이 수박외상값이라며 돈 5냥을 주며 당신이 걱정하고 있을것이라며 빨리 전하여 주라고 놓고 갔다며 엽전꾸러미를 내놓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농부는 그 선비가 예사 사람이 아니라 도인인데 몰라보았구나 라고 생각했고, 모든 길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곳을 수박구멍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길손, 젊은 선비의 정체를 몰라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였든바 당시 유명했던 이지함 토정선생의 기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곳에서 수박장수를 놀려주던 젊은 선비가 토정선생이었나 하고 추측도 해보았다고 한다.

구술자: 광천읍 송우 김 정 현

政治人の 道徳性

정진태

오늘날의 政治人は 별로 믿을 善良이 없는듯 싶다. 한마디로 目不忍見이다. 百姓을 속이고 地域區民을 속이는 政治人.

두터운 顔面, 바로 그것이 問題이다.

公約을 왜 하는가? 그것은 空約이다. 當選이 되면 國家를 위하고 國民을 위해서 또한 國家百年大計를 위해서 當然히 이를 찾아서 해야할 本分이 아닌가? 옛 聖者는 志操를 生命으로 알고 牧民했거늘 오늘날의 世態는 왜 그렇게 不道徳한가? 異口同聲으로 慨嘆한다.

바로 그것은 너의 責任도 아니요, 나의 責任도 아니다. 서로 轉嫁하는 現實 分明히 國民은 善良하다. 믿고 뽑아준 政治人이 보따리를 싸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志操없는 사람, 利權을 챙기고, 立身揚名이나 노리는 그들 國民은 결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뜨거운 눈초리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事實을 銘心하여야 한다.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하는 是是非非를 論할 資格도 없지만 이는 곧 全國民의 소리라는 것을 忘却해서는 안된다.

나는 지난 1992年 12月 2日字「東亞日報」에서 첫면에 '알맹이 빠진 블랙박스 열친 알고도 건네줬다' 라는 記事를 보고 당황했다. 참으로 이럴수가 있나, 美國과 日本에서는 우리나라에 反選을 強力히 反對했다는 內容이다. 믿은 도끼에 발찍히는 우리의 友邦, 그들이 보는 視覺 참으로

치욕적이고, 念痛치 않을 수가 없다.

은 世界는 理念에서 脫冷戰時代로 바뀌어졌다. 나라마다 잘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分明 國교가 必要하다. 問題는 經濟 強國의 目標이다. 만일 日本이나 美國 같으면 이러한 恥辱의인 일을 당하였겠으며, 또한 生覺이나 해보았겠나 하는 마음이다. 敗者는 有口無言이다.

오로지 强者여야 한다. 이제 世界 強大國들이 우리를 찾는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는 政治人이나, 公職者나 宗教人이나, 國民 모두 하나가 되어 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그리하면 全世界에서 우리 大韓民國을 輕視할 者 누구며, 北韓의 金日成인들 屈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는 12월 18일은 21世紀 未來를 向한 歷史的인 大統領選舉日이다. 適格人物이 많아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그만치 여덟분이나 競合한다.

韓峻洙 前燕技郡守의 官權介入 暴露事件으로 不正의 一大革新을 이루고져 盧大統領의 굳은 意志로 當職을 떠나고 公明選舉를 치르기 위해 中立內閣을 出帆시켰다. 그러나 選舉運動過程에서 候補者나 運動員의 不正非理 脫法은 또한번 國民을 失望시켰다. 이제는 官權이 完全中立 되었으니 候補者間에 떳떳하고 正正堂堂하게 競合해야 할것이 아닌가?

地方議會나 國會議員選舉보다 조금도 다를것이 없다. 주워진 法을 지키고 행할 統治者의 候補者가 이럴수가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候補者는 이제 過去의 官權 介入으로 인한 不正選舉가 아니라 候補者 스스로가 不正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國民을 相對로 아니 有權者를 相對로 脫法, 非理등 어떤 方法이든 當選되겠다는 過慾. 참으로 그분들이 國家를 위할것인지 아니면 國民을 위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個人 즉 本人의 名譽를 위해서인지 理解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選舉文化가 定着될 것인가 이제 家族들이 相議해서 意思를 같이 하는 時代도 지났음을 다 알 것이다. 有權者가 選擇하는 幅도 多量하다. 이 水準 높은 國民 또는 有權者를 相對로 不法 또는 非理가 通할수 없다는 事實이다. 가는곳마다 남발하는 公約이 當選된후 實踐되지 못하면 國民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辯明할 것인가?

國民 또는 有權者는 選擇의 權利가 있다. 實踐 가능한 分을 選擇하게 마련이다. 正義롭고 正正堂堂한 競合을 바랄뿐이다.

우리 先祖들의 歷史속에는 清白吏와 같이 不義를 보면 容恕하지 않고 옳다고 生覺하면 몸까지 던지는 吏道刷新의 精神이 깃든 牧民官이 많이 있었다.

우리는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어 前進만이 살길이며 後退하면 公滅한다는 事實이다. 남을 탓하기 전에 自己의 位置와 行動을 反省하는 姿勢. 政治人은 堂利利澤과 立身揚名을 버리고 私心없이 國家와 國民을 위해서 設計하고 實踐하는 政治人. 公職者는 職分을 利用한 權義와 非理를 버리고 清廉한 吏道로서 忠實히 責任을 다할 것이며, 國民은 자기에게 주워진 位置에서 責任을 다할때 우리의 앞날은

결코 後退하지 않고 前進만이 있을 것이며 흘러가는 歷史는 恥辱의 歷史가 아니라 光明의 歷史가 될 것이다.

不欺不怒志不求多爲而不貪爲陸汝欽
鬱毒督者志生毀譽不傾以美帝吉順而
遠無悔悛
清風明月不用錢竹簾茅屋不責錢讀書
談道不求錢潔己愛民不用錢

陸汝欽
宣統元年

★ 필자 회 호

회 원 가 입 안 내



● 홍성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홍주문화」는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현재 향토문화연구회원은 연구회원, 후원회원, 구독회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연구회원은 성별, 나이, 신분의 차별없이 향토사 연구에 관심있는 홍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학술단체의 정회원입니다.

● 평생회원은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지원해 주시는 개인 및 단체로써 가입후 필요한 회지와 홍주향토문화연구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기획물을 받아 보실 수 있고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회원은 책의 제작가에 해당하는 연간 1만원의 회비로 한 해동안 거르지 않고, 책을 집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및 회비불입 방법은 직접 홍성문화원을 방문해 주시거나 다음의 온라인 번호

■ 농 협: 447-02-065850

예금주: 허 규

■ 충청은행: 590-02-034374

예금주: 허 규

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편집후기

역사의 흔적을 보며 그 시대의 인물을 만나고, 그 시대의 정신을 만나면 화창한 봄날이 된다. 세상사 털어놓고 비워 둘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역사의 흔적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

모든것 알것도 같은데, 운산 마애삼존불 앞에 서면 초라해지는 모습을 자각하며 멀뚱멀뚱 형광등이 되어, 알듯 모를듯 알고 있다는 모든 지식이 필요 없는 그런 순수 앞에 선다.

발개 벗겨지는 수치심을 아는듯 모르는듯 포근히 미소 짓는 백제의 혼은 오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있을 뿐이다.

1993. 3.

臥石

홍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명단

성 명	전 화		주 소
	사 무 실	자 택	
裴 東 順	(0 2) 6 6 5 - 1 4 0 8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723번지
金 用 信	32-2016	32-2834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5 김내과의원
許 奎	6 4 1 - 2 3 3 8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34-1 허약국
金 世 煥	32-3221	32-2363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조양인쇄사
朱 塗 魯	3 3 - 3 0 1 1		홍성군 홍동면 팔패리 665번지
田 潤	(0452)33-1911	641-0558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79-8번지
金 淸 圭	642-8555	642-8244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黃 性 昌	6 4 2 - 8 0 3 8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380번지
蔡 洙 澈	33-3172	33-3442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433번지
李 淵 完	3 2 - 2 0 7 4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519-2번지
李 乾 燁	3 3 - 2 3 4 6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600-11번지
鄭 鎭 泰	3 3 - 7 0 5 7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금골
朴 文 信	6 4 1 - 0 2 3 8		홍성군 구항면 신곡리 척괴
金 庚 洙	3 2 - 0 4 9 0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법수
田 玉 鎭	32-2151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715-3
李 道 行	32-8771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142-4 서부중학교
卜 益 采	3 2 - 6 5 4 0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298번지
趙 煥 雄	642-6065	642-1273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09번지
田 炳 勇	32-2341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구 345-2

市
十

海美

京
日
四
月
十

小
管

文
照
堂

九

京
日
四
月
十